言論文化의大殿堂·今日에歷史的落成式

朝鮮日報
夕刊 六日(土)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天氣豫報
曇一時晴
朝鮮의 低氣壓은 中國海와 江中海에잇고 日本海의 高氣壓은 小笠原島附近에잇다 日本中部의 海上으로 부터 朝鮮의 氣壓은 多少놉다 滿洲는 개이고 朝鮮沿岸에는 東風이 불고 西方面은 비가올것이다 明日은 흐리다
昨日 氣溫 最高 二十七度八分 最低 十九度 今日 正午 二十六度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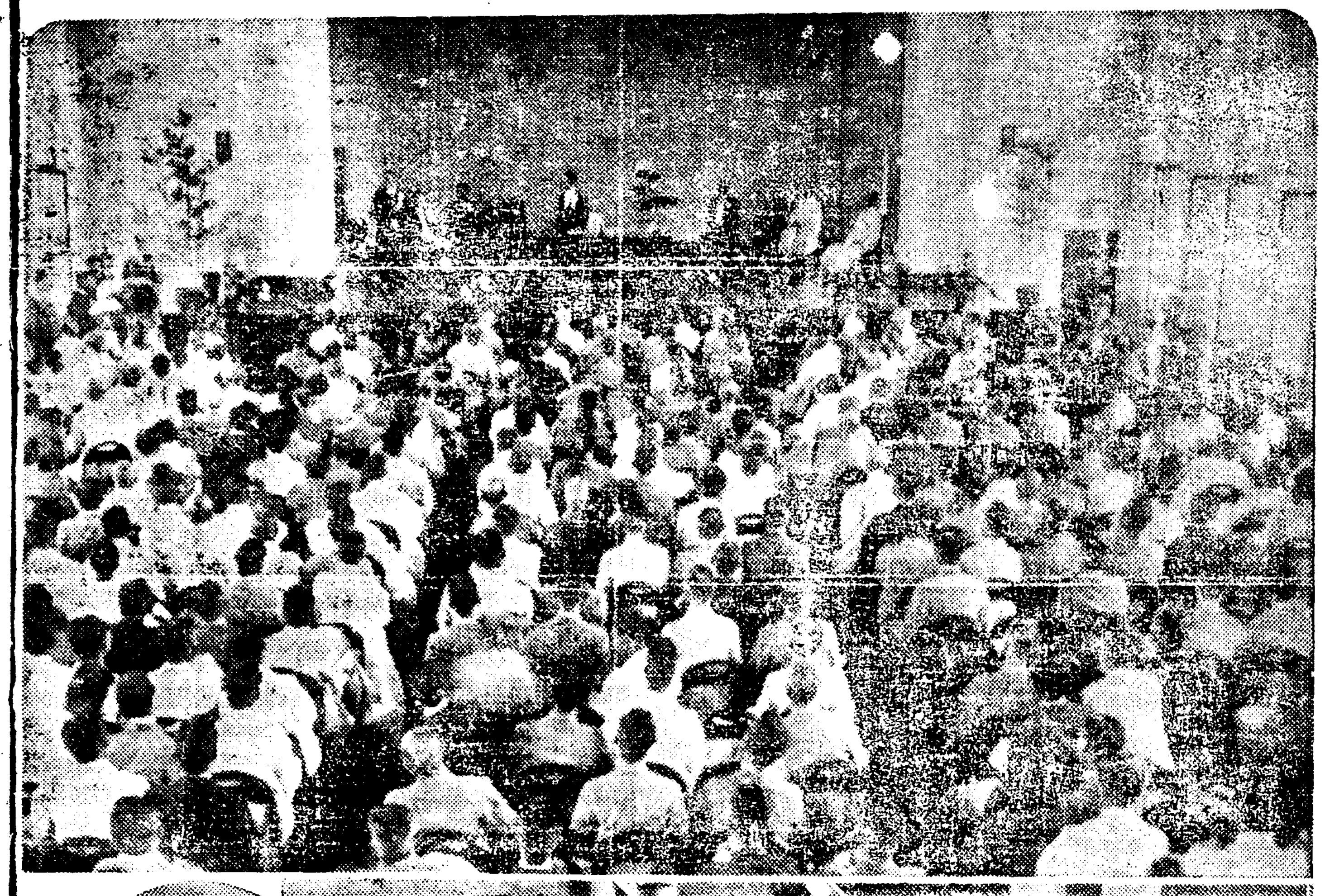
太平大街·瑞氣는靉靆 莊重·感激·歡喜의盛儀
內外名士千餘名一堂에會集 民族的文化塔畢營을祝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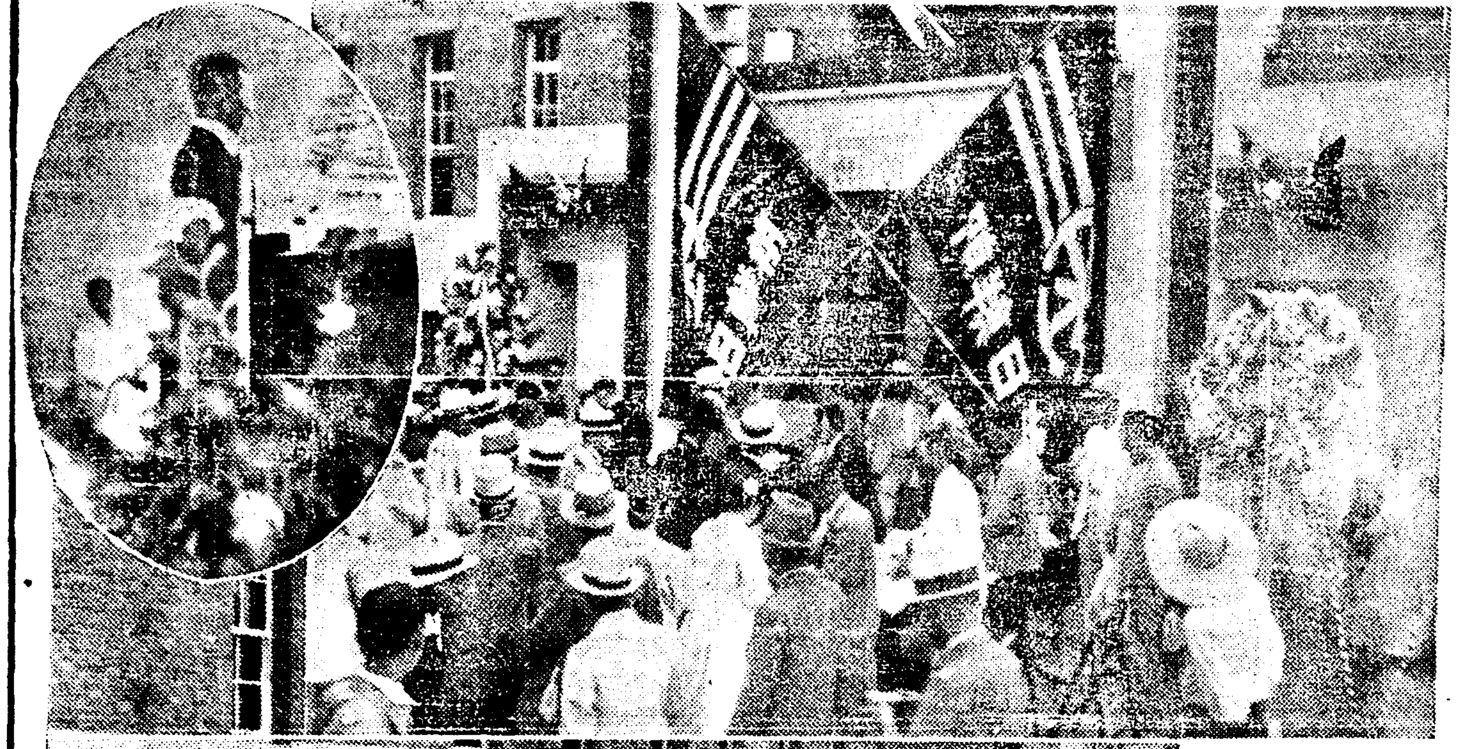
이천만민중의 열렬한 지원아래 착공한지 일년반만에 드듸여 완성의 깃븜을 맛게된 조선여론의 총본영, 본사신사옥의 락성식은 마츰내 오늘로써 거행되게되엿다 이날아츰, 전일밤의 천긔예보(天氣豫報)는「호릴것」을 말하얏고 한울에는 검은구름장이 이리저리 왕래하야 저윽이『깃거운녀일』의 천후를 념녀케하얏스나 정작이날에 이르러서는 일은아츰부터 요운(妖雲)은 허터지고 황금색 아츰햇발이『펭키』냄새 새로운 여론의대본영인 본사옥을 곱게어루만저 이땅의 이민중을 축복하는듯하얏다 이날의 경성시내는 아츰안개가 북악산중턱으로 거처올라가고 서늘하되 유화한 바람결이 밤지난거리를 깨끗이 씨서주어 섬하의 더운여름이나 느진봄날의 화창한 일긔를 부럽지안케하야 민족문화백년의 안복으로보아 처음되는 성의(盛儀)의 날이마즘 구름한덩이, 바람한줏이나마 심상치아니한 늣김을 주엇다

이날 태평통 큰거리 본사에는 만반의시설이 예정대로 정비된아래 정문대현관(大玄關)에 교차된 진홍색 사긔(社旗)는 령롱한 햇발아래 활긔롭게 날리는속에 식을여는 열한시 정각을 전후하야 본사조선제일호 비행긔는 은익을 번득이며『엔진』소리 용맹스러히 자축 비행을하야 지상과 공중이 함께 상서로운 긔분에 싸인속에 축하하는 손님의 수레는 차츰 뒤를니어 본사압호로 느진 호(號)를 그웃기 시작하야 정각인 열한시에 이르러는 벌서 만함식(滿艦飾)을한 본사 대강당은 내외명사 천여명이 모혀들어 애한 회긔속에 착석하자 본사영업국장 문석준(文錫俊)씨의 개회사로 조선문화사상 일대긔렴탑 본사옥 락성의 력사적 성의(盛儀)는 감격과 환희중에 막을열엇다

瀏喨한奏樂으로開式 感銘할諸位의祝辭
萬雷가튼拍手는場內를震動 遝至한祝電도千餘通

예정시간보다 약삼십분어늣진 오전열한시반부터 락성식은 거행되얏다 넓으나넓은본사삼사층 대강당안에는 각계명사만으로일천여명의 래빈이더운일긔와분망한것을 거리끼임업시 왕림하야 참석하니 나무향긔조차새로운대강당은 실로조국의여유도업는당내에는전면으로 시내각외국령사관(領事館)대표래빈과 민병석(閔丙奭)자작 이달(伊達)경성부윤등 제씨를위시하야 도착한 순서대로 명사가위가 별가치늘어안젓고 뒤로는지방에서온 본보지국장삼백여명이참석하얏다 먼저악대의 주악이잇서 류량한 선률은 강당을 진동식히이날의성의를 긔운도로고이섯다 이어서본사영업국장 문석준(文錫俊)씨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매 만장에일어나는박수소리는 실로 일만우뢰가 한꺼번에울리는듯하야 광휘잇고 명랑한본보발전을 고무하얏다 이어별항과가리 본사사장방응모(方應謨)씨의식사가잇스매 다시장내는 박수소리에파뭇치는듯 하얏는데이날참석한 금정전(今井田)정무총감을 위시하야 각계일본내지인측 래빈을위하야 사장의식사를 본사주필 서춘(徐椿)씨가 역독(譯讀)하고 그다음본사총무국장 김기범(金箕範)씨의공사보고(工事報告)가잇고 이어서래빈축사에들어가 금정전정무총감(今井田政務總監)의축사(祝辭)가 잇슨다음 좌옹윤치호(佐翁尹致昊)씨의축사와 우당권동진(憂堂權東鎭)씨의축사가 끗는듯한 마장의 환영리에잇섯다 제위의축사는 모다본사의 경이적발전과 신축사옥의 회려향을 축복하야 조선의대표언론긔관으로서의 전도가 일층 기대된다는 감사한것들이엇다 다음으로 축사가끗난다음 본사편즙차장(編輯次長)함상훈(咸尙勳)씨의일천여통이나 되는 축전축문랑독이잇섯고 이어 본사장으로부터 건축설계자박동진(朴東鎭)씨와 건축청부자 복음건축창왕공온(福音建築廠王公溫)씨의포상(褒賞)이잇고 이어주악으로 폐회하니 때는오후령시십오분이엇고축시 일동은 후정(後庭)연회장으로안내되얏다





寫眞說明 上은 內外賓客이滿場한式場 中은 式辭하는方社長 下는 辨촉한本社玄關

式辭

閣下와 來賓諸位께서 公私奔忙하시고 아울러 炎天임을 不拘하시고 弊社社屋新築落成을 빗내주시기爲하야 多數來臨하시니 不肖方應謨는 弊社를 代表하야 衷心으로感謝하기를 마지안는바로소이다。

도라보건댄 朝鮮日報는 過去 十五年間 歷代經營者의莫大한 物質的 犧牲과 精神的努力과 더욱이 滿天下의讀者諸位의 支持를 입사와 今日에 至하엿사옵고 再明年 不肖가 이經營을 引繼하오매 本來 斯界에 生疎하온지라 슨사로 甚히悚懼하기를 마지아니 하옵더니 多幸히 안으로는 幹部以下 一般社員의 同心協力이잇고 밧그로는 讀者와 一般社會에서 熱烈한援護를 앗기지아니하시와 開來三週年間 큰허물업시言論機關으로서의 奉仕의任務를 다하엿슬뿐더러 發行部數에잇서서나 社會의 支持에잇서서나 實로 空前의發展을 이루어 오늘비롯 번번치못하나마 이만한 新社屋의 落成을 祝하게되오매 不肖는 一邊깃붐을 늣기는 同時에 他一邊으로는 社會、民衆의 同情과 支持에 對하야 感激함을 마지못하오며 하믈며 弊社의責任이 今後더욱 重大함을 自覺하오매 조심스럽고 悚懼함을 禁치못하는바로소이다。

願컨댄 이에 臨席의 光을주신 閣下와 來賓諸位께서는 압흐로 더욱 弊社를 爲하야 끈임업는 鞭撻과 支持를 주시와 朝鮮日報로하여곰 言論奉仕의 使命을 온전히 일우게하시기를 바라옵고 끗흐로 한번더 閣下및來賓諸位께 臨席하신 厚意를 感謝하옵고 아울러 諸位의 健康을 祝願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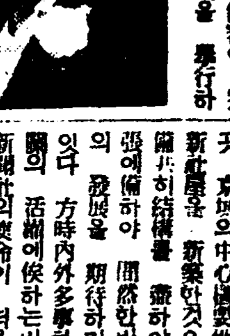
昭和十年七月六日
朝鮮日報社社長 方應謨

主客間和氣靄靄 談笑間祝杯交驩
◇本社後庭의大宴會場에서 曺晩植氏首唱萬歲

오후령시반 공전의성황리에 본사사옥락성식은 원만히 마치고 일천여명의 내외빈객은 청아한 주악에 인도되여 본사후원에설비해노흔 피로연회석상으로 향하엿다 넓은후원일면에는 천막으로써 폭양을가리엿고 장내의 상공에서 미풍에휘날리는 오색의기빨은 마치이날의감격과 환희에 떨리는듯하엿다 조연을위하야 동원한일백오십여명의 기생군이 대기하는회장에서 내외빈객들은본사가 준비한 조찬을가운대두고 주객이석겨 한담중에 폭발되는우슴 축배의교환그야말로 조선언론기관의 대전당이락성되에잇서 그깃븜을주객간에 충심으로피력하야 원은연회장은 화락의꼿동산으로변하엿다 그리고 식장에서본사사장 방응모(方應謨)씨의인사말이잇슨뒤에 금정전정무총감(今井田政務總監)의 답사가잇섯고 끗흐로 본사고문 조만식(曺晩植)씨의 선창으로 일동이 부르는『조선일보만세』의소리는 장내를 떠보낼듯이 우렁차게울렷다

各位의祝辭

祝辭 今井田總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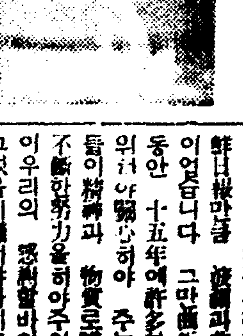


朝鮮日報社가 昨春에 社屋改築을 起工하야 玆에 偉容이 完成되여 本日落成의式을 擧行하게됨은 實로慶賀不堪하는바이다 回顧컨대 朝鮮日報는 創刊以來로 十有六個星霜에 其間充實히 半島言論界의 重鎭으로서 內鮮의 融合文化의 向上과 産業經濟의 進展에 努力하야써 半島의 開發暢達의 隆昌에 貢獻한바 頗多한바이잇고 社運은 逐年隆盛하야 內容의 充實은 社業의擴張을 切要하는바되야 곳 京城의中心區要地를 相하야 新社屋을 新築한것으로 外觀設備가 共히 結構를 盡하야 將來의 伸張에 備하야 闕然한바업서 足한바 잇다 方時內外多事하야 言論機關의 活躍에 俟하는바 極히만코 新聞社의使命이 더욱重大化하는 秋에 本社社屋新築의期를當하고 自今一層自重奮勵하야 社會의木鐸으로서의機能을 發揚함으로써 其實務를다하기를 翼望하며마지안는바이다 一言蕪辭로祝意를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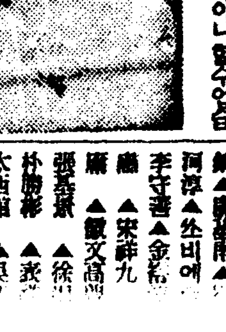
昭和十年七月六日
朝鮮總督府政務總監 今井田清德

祝辭 權東鎭氏

우리는이자리에서 朝鮮日報에 對하야 세가지감사를아니할수가 업스니 첫재는우리新聞界에서朝鮮日報만큼 波瀾과曲折잇는新聞이업습니다 그만한 曲折을겪거온 동안 十五年에許多한우리社會를 위하야 關心하야 주는許多한有志들이 精神과 物質로犧牲되야가며 不斷한努力을하야주엇스니 이것이우리의 感謝할바이오 둘재는 그것을引繼하야가지고 오늘날이 [illegible] 이마만큼하게이 機關을만들어주신 現當局者들이볼 그만큼 努力과犧牲을 앗기지안는데또한感謝하지 아니할수업습니다 셋재는 二十一年前 始作할때보다目標를바로하야 不偏不黨한 態度로서 恒常 우리社會 先驅者와 指導者가되고 또 이를爲하야 애쓰는것이니 여긔 대하야서우리二千萬同胞가 누구나感謝치 아니할수업스니 朝鮮日報의發展과 가튼 [illegible] 朝鮮日報의前途를 [illegible] 함께 祝福하는바입니다



祝辭 尹致昊氏



目前關係이가장 [illegible]하고 [illegible]比한 거긔의한북괴로웟귀고 [illegible]의 變動으로써 十五年間[illegible]風霜의 辛酸한過去를말하면서 [illegible] 의苦悶한將來를 보여주는 이社屋이야말로 오늘우리들의 한자랑이아니라고 할수업습니다 그러나나의자랑은 이社屋의基礎가 崇嚴하고 構造가宏傑한 그것이 아니요 우리들의理想的建設을唱的으로表現한거기에잇슬것입니다 이집을經營한當局者의 理想도반듯이여기에잇슬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이자리에서 여러말하지안코 이집은朝鮮日報社의所有라기보다도 곳우리들의 [illegible] 於斯할 그집이라는것을 [illegible] 여두는것입니다

本社飛機快翔에 萬歲聲爆發
大混雜이른太平通一帶

各自의特色과隆盛을 자랑하는

由緖깁흔洋樂隊 어렵게모혀奏樂

이번본사락성식에출연한 양악대(洋樂隊)는 사십여년의력사를 가진 리왕직양악대(李王職洋樂隊)로 순종승하(純宗昇遐)이후 해산되얏든 유서깁흔악대이엇든데 이번락성식을긔회로 잠시나마 실로의의깁흔 재회(再會)를보인것이다

간복잡한것이아니엇스며 본사락성식을축하하는 본사비행긔가옥상에나즉하게떠서 몃번이나몃번이나선회비행을거듭하자 일반래빈은물론길가든사람들조차 고개를바라보고 대강당서흘러나오는대소리에마처 누가하얏는지 시 조선일보만세를가티불러주엇다 본사후정에베푸러노흔피로연이끗나자 래빈들은 다각긔긔념다과를들고 본사가자신을가지고일반세게이바지하는 신문전람회장에들어가 신문제작의 총과정과 신문의 력사와밋현세를일람한후 본사공장과사옥을 구경하는 이서로서로어걸리며 사옥내외는 물론하고 멀리태평통네거리까지 대혼잡을일우엇다

來賓과祝電祝辭

정각도되기전부터 멀리전조선으로부터몰려드는 본사지분국장들의 속속입장을시작하야 정각이가까워오자 각계인사일천여명은 흥은자동차로 흥은인력거로 흥은도보로 식장을향하야 물밀드시태평통(太平通)네거리에는자동차인력거의대홍수를일우어 여

來賓(無順)

▲今井田政務總監▲池田警務局長 ▲朝鮮中央基督靑年會長 尹致昊 ▲權東鎭▲魚丕信博士▲延專副校長 兪億兼▲蘇聯總領事 만체프 ▲中國總領事 范漢生▲同 羅副領事▲英國總領事 키모드▲米國領事 윌리암·알·랭돈▲上內保安課長▲佐伯警察部長▲田中外事課長▲井上遞信局長▲伊達府尹▲柳生圖書課長▲韓□雲▲中央佛專 朴漢永▲吳□善▲曺晩植▲세부란스醫專校長 吳兢善 ▲嚴社會課長 ▲京城府□社課長 ▲楊在河外事課事務官 ▲鹽田文書課長 ▲上瀧人事課長 ▲西龜衛生課長 ▲申鳳休 ▲京城木村時計店齋藤重一▲同 村時男 ▲大澤商會相羽恒次▲아-르萬年筆本舖米澤萬正堂 ▲光云商會曹光云 ▲東明館 ▲李乙 ▲靑山藥局 咸承英 ▲京城稅務監督局 美座流石

▲三和銀行本出弘一 ▲西大門署 [illegible]雄▲明治製菓生田忠美▲[illegible]出版社▲安大鎬 ▲木村[illegible] ▲耶蘇敎書會吳天泳 ▲培花女高金[illegible] ▲京城商工會議所 [illegible]智煥 ▲朝鮮東部岡本茂▲光化門金組吳翊煥 ▲朝鮮運送大川正 ▲大學病院朴秉來 ▲東亞[illegible] ▲姜根哲 ▲廣信商會

本社前大混雜

오전열시쯤되자 본사대현관압 큰거리에는 래빈을 모신자동차가 한대두대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열시반쯤되야서는 실로 태평통거리 공전의큰잡답을 보일만큼 차마(車馬)의 대혼잡을이루엇고 래빈의운집과 차곡(車轂)의폭주로 잡답한거리에는 다시구경꾼이 사방에서 구름가티모혀들어 본사압큰길건너는 실로구경하는 사람을 담을싸엇다

世界新聞文化縮圖에 內外賓客驚嘆不已
今日、本社新聞文化展覽會遂開幕
各館의設備縱橫無漏

조선신문사상에일대에폭을지을 본사사옥의 신축락성식을거기로 배전의애비를기약하는 본사가그 기념사업의 하나로 조선문사상에보내는 력사적선물인신문문화전람회(新聞文化展覽會)는 드듸여륙일오후 세시부터 개장하기로되엇스나 이룰압두고오후한시부터두시까지 본사낙성식에 참여했든귀빈제씨의 참관을받기게되엇다세계신문화의정수를일당에모아서신문의력사와현상을통어 세세한해설과 방대한규모를인테케하는 그야말로세계신문관(本社館)、조선관(朝鮮館)、세계관(世界館)의각관을 구경하는곳 (新聞館)의축쇄판(縮刷版)에 새삼스럽빈틈은 모다오늘의세계를 진감시키고잇는『쩌-날리즘』기구의 잇기지안켓다

謹告

今日本社社屋落成式에際하야 公私間多忙하신을 不拘하시고 式場까지 來臨하여주신 諸位에게는勿論, 갓가이는朝鮮全道의 各界各層과 멀리는 海外各地로부터 懇曲하온 祝電과祝辭를 보내주시와 本社로서는 못내感激不已하는 同時에 삼가 謝意를 紙上으로 謹表하옵나이다

朝鮮日報社

祝電

▲大朝社長 正力松[illegible] ▲清州 [illegible]源 ▲日本陸軍[illegible] ▲大阪 獨立[illegible] ▲插橋 李[illegible] ▲金泉 宋[illegible] ▲慶州 金[illegible] ▲柳鎭[illegible] ▲羅州 [illegible] ▲丹陽 [illegible]秀日 ▲日本電報[illegible] ▲大同 [illegible] ▲平壤 [illegible] ▲光州 玄俊鎬 ▲金剛 洪命熹 ▲義州 金仁穎 ▲城 金俊玉 ▲尹益[illegible] ▲陸運會社 ▲學校長 ▲慶尙[illegible]會長 ▲江陵 柳[illegible] ▲江陵郵便[illegible] ▲江陵 吉[illegible] ▲新義州 [illegible]根 ▲江陵郡[illegible]村 ▲南陽 柳[illegible] ▲大阪[illegible]知事 ▲大阪文局長 甲秀 ▲崔永禎 ▲鴨綠江[illegible] ▲定州 [illegible] ▲咸興 [illegible]深 ▲鎭[illegible] ▲瑞基 [illegible] ▲金斗衡 [illegible]州

▲崔圭鼎 ▲西 [illegible]本 ▲明本喜六郎 ▲山本遼三郎 ▲韓承履 ▲[illegible]성비아 ▲雲生堂 ▲朴永禧 ▲漢城銀行[illegible] ▲中央基[illegible]水 ▲李容九 [illegible] ▲閔泳玉 ▲具滋[illegible] ▲[illegible]南 ▲朴在[illegible] ▲宋[illegible]九 ▲金[illegible] ▲李守鉉 ▲[illegible]文[illegible] ▲張基[illegible] ▲徐[illegible] ▲朴勝彬 ▲太西館 ▲吳[illegible] ▲李正[illegible] ▲李檳 ▲榮世 ▲培材[illegible] ▲杉山久 ▲金[illegible]永 ▲京城保[illegible] ▲李覺[illegible] ▲李榮俊 ▲中[illegible]長 ▲榮在[illegible] ▲協成實業[illegible]元 ▲銀行專務取締役 ▲培花女[illegible] ▲沈友燮 ▲朴[illegible] ▲取締役 ▲鄭廣朝 ▲朴永根 ▲[illegible]

海軍力을擴充하야 華府條約比率破棄企圖

에國과戰端開始時에海峽連絡確保 經濟的封鎖를當할時의境遇도考慮

伊海軍首腦部의會議

【羅馬五日發聯合】 뭇솔리니首相은 二日부터베네치아宮에 海軍首腦會議를 召集하고 審議를續行하야 五日午後 閉會하얏다會議의 內容은極秘에 附하고잇스나 傳하는바는 如左하다

一、歐羅巴政局의 新展開時에 海軍의復興에 對하야 海軍力의 擴充、戰鬪能力의 增加를圖하야 將來할 海軍縮少本會議에서 華府條約의 比率을 破棄하고 優勢한海軍을確保할수잇도록 立場强化에 努力할것

一、에디오피아國境線上에 衝突戰端이 열릴 境遇에는 海峽의 連絡上 地中海를 確保할 必要가 잇고 또 經濟封鎖를 當할 境遇도 考慮하야 海軍力整備에 努力할것

北平에流言嚴戒令

【北平六日發聯合】 來十日頃 石友三軍이 戰區의 土匪를煽動하야 北平奪取의 暴動計畫이 잇섯다는 流言이 頻頻히 傳하고 또 北平南門附近에는 多數의 便衣隊가 潛伏해잇다는 流言도 잇서 北平軍事分會는六日 各軍에 對하야 嚴重警戒를命하엿다

蘇聯의赤化工作 中、邊境에積極進出

尖端은이미新疆省哈密에到達 第二段은外蒙甘肅等

【天津五日發聯合】邊境中國에의 蘇聯의 赤化工作은 더욱 積極的이되여 今日 當地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左의 諸點을 指摘하야 新疆省內의 赤化工作을 說明하고잇다

一、新疆省內의 蘇聯顧問을 二名으로부터 五名에 增加할것

一、치차、레키카、哈密間에 自動車道路를 完成하야 二十哩乃至 二十五哩마다 給油所를 設하야 十五名內外人警備兵을 駐屯시켜서 蘇聯의 此를 指揮할것

一、哈密에는 蘇聯指揮官이 新카介갈軍을 訓練하고잇고러-키스탄에는칸체프司令官이 全面的指揮에當하고잇다

一、新疆省의要所에蘇聯飛行機가 駐在하야 連絡과警備에當하고 잇는데 그數는約二十數臺라고 稱한다

一、蘇聯은 카介갈이 一共和國으로 蘇聯에의 加入을 切望하고잇다고 對外的으로宣傳하고잇다 이것을要約컨대 蘇聯의赤化工作의尖端은 이미新疆省의東端哈密에 達하고外蒙、甘肅、青海에의 第二段工作을進捗하고잇다

外蒙側과의 交涉經過發表

【新京五日發聯合】滿洲國外交部는 五日午後六時 犬養測量手不法拉致事件에 關한 外蒙當局과의 交涉經過를 如左히 發表하엿다

關東司令部及 滿洲國外交部는 七月四日 在滿洲里外蒙代表를 通하야 外蒙政府에 對하야 犬養測量手拉致事件에 伴하는外蒙兵의 滿洲國領內不法侵入과 日本人에 對한 侮辱事件에關하야 正式抗議를 提出하엿다 抗議의 內容은 今回의 事件은 勿論 將來에도 이런此種紛爭의發生과 擴大豫防의見地에서 滿蒙兩國은 善友好的關係를 保持하려는것을 重要視한것으로 外蒙政府가 誠意를 가젓스면 容易히解決될것을 確信한다

伊에紛爭居中斡旋 米國政府拒絕!

諸般情勢를檢討한結果

【華盛頓五日發聯合】米國政府는 아디스아베바駐箚 代理公使를 通하야 伊에兩國間의 紛爭에 對하야 居中斡旋을 에디오피아政府로부터 要請바덧스나 情勢를 檢討한結果 右要請을 拒否하기로 決定하엿다

에國要請에 米國務官 答

【電通華盛頓五日發】米國國務省은 不戰條約의 精神에 基하야 伊工紛爭의 調停을 에디오피아國으로부터 要請바든데 對하야 헐長官은 即時對策을 協議한 結果 右要請에 對한 回答文이 되엇스므로 右回答文을에 國皇帝에게發하엿다 回答文의內容은 大要 如左하다

伊에 兩國이모다 不戰條約의 調印國인 點하야 나는兩當事者의 어느便이든지 紛爭의 解決에 當하야 平和的以外의 手段에 訴하고 或은 條約의 精神에 矛盾됨과 如한如何한 事態의 發生을 許하기를 願치 안는바이다 그리고紛爭은 目下 聯盟의 機構下에 和協調停의 過程에잇스므로 나는 兩國政府가 滿足한解決에 到達하기를 希望하는바이다

巨人機十六臺로 空中艦隊編成

막심고르키의墜落에依한 當初의補充計畫擴充

【莫斯科五日發聯合】空中의怪物 막심 고르키號가 空中衝突한結果 莫斯科郊外에서 墜落直後 蘇聯政府는 直時巨人飛行機三臺와 代艦建造를 決定하고 資金募集에 着手하엿는데그後 當初의計畫을 擴大하야巨人機十六臺를 建造空中艦隊를編成하기로決定하엿다

『安宅』南京着 事件解決까지碇泊

【電通南京五日發】漢口로부터急遽下江한 軍艦安宅은 五日午後四時 南京에入港하엿는데 杉坂第十一戰隊司令官은 即時 須磨總領事、北浦海軍武官、雨宮陸軍武官等과 會見하고 重要協議를하엿다『安宅』은『新生』不敬事件解決까지 南京에碇泊하야 事態의推移를 監視할터이다 그리고 南京에在泊하는軍艦은 이로써驅逐艦『浦風』과『安宅』의 二隻이되엇다

新聞小史(二)

第一期甲申時代(一)

文明開化와自立의烽火

民世學人

◇ 時局은 돌어닷고 民衆은 움측이고 社會의마음은 推移하는데 歷史는 딸어서 生長하고 展開되는것이다 이움죽이는天下의한복판에서서 움죽이는天下의마음을 앞장서서 忠實果敢하게表現하여 나가려는 新聞人의 참스러운努力의 그늘에는 언제든지 時局의 險難한 風濤의 울통으로 번득이는 社會意識—抑天下의 마음의 빛나는 內光을 볼수잇는것이오 여기에서 未熟 하나마의 時代의歷史를 볼수잇는것이다 高宗甲申時代의 開化初期의 貧弱한 新聞紙面을 通하여서도 吾人은 그러지안흘수업는 暗黑時代와 巨濤를 直面하야 나한 뜻이의 애태우고 피쓰든 落後者의 意識을 드러볼수잇다 漢城旬報를 손에드는者 그題號의미테 統理衙門博文局의 커드란 附記가잇는것은 이것이 內閣—統理衙門은即內閣—即國의機關紙임을 알것이오 투어떼—지넘기는동안 本報編纂人 地球全圖가나와 朝鮮 日本 中國 滿洲으로 俄羅斯、英吉利의 東西의列國이 指點되는것은 지금의 眼目으로는 우스운듯하나 支那하든鎖國夢에서 世界란것이 무엇인가를 民衆이알고시퍼하엿든것은 歷史的이엇이며『旬報序』라는創刊辭에서『禹別九州로 周官辨土하되 要荒之外는 槪不及焉하나 華以 山川이限隔하고 書軌가不同함이라」고하엿다 이제 잠깐 解說을 한다면 夏禹의九州은 中國九州를象한者이오 周禮의 夏官司馬는軍部者로『職方氏는 掌天下之圖하야 以掌天下之地하되 辨其邦國都鄙四夷八蠻 七閩九貉 五戎六狄之人民과 與其財用…』云云을 말한것이오 要와荒은 夏禹氏五服의 第四、五位를 가르친것으로 그들의 所謂『書同文、車同軌』라는 中國即天下라고 밋든 局見을 打破하고 비로소 自我를 世界文化의 大潮속에 解放하려는 念願과意圖에서 나오는것이다 그럼으로『今에 風氣가 漸闢하고 智巧가 日長하야 輪舶이 馳環하고 電線이 聯絡四土』라고하야 눈아페 展開된 西歐의 機械文明 科學文明이 무럭무럭 東方의海陸을 侵襲하면서 風雨가나붓기는 朝鮮의國基에 머어들려든것을 愁嘆한것을볼 수잇다 이에報導機關의 必要한것을말하되『朝廷이 開局設官하야 廣譯外報하고 並載內事하야頒示國中』이라고하엿다 그使命으로삼은 效用을 說明하되『可以燭照鏡考할것이오 而褒貶勸懲之意가 又 未嘗不行乎其間也—라』고하야 社會의 燈燭이오人民의 거울인것을 褒貶과勸懲을 民農을 指導 啓蒙할 抱負를보엿다 高宗元年甲子로 十三年丙子에 까지 燕京에 往返하는 朝鮮의使節이 좁아왓슬적마다 照政堂上의 會議한座席에는『洋夷』『入寇中國』한報告가 目下라면 山村兒童의 邑內단여 온이야기쯤도 아니되고 八年辛未米國東洋艦隊의 侵入에는 延生殿의 進講에서 高宗께中庸과詩傳을講하야 金炳學 洪淳穆等 廟堂의 大臣들이 흑『海浪賊』一流로만 해利(米國)을貶해버리고『一種邪之氣』라고 淺薄한陰陽說的獨斷을나리어『我東禮義之邦』을무던한自負로하고『夫子之道』는如日月中天』이라고疏漏한自慰를하야 서當局을 誇飾하든바이니 西歐의資本主義的 侵略의猛火가 바로西隣인支那의天地에서 피어오르고잇서 朝鮮으로 그類燒의危險에 빠지게하는것도 깨닷지못하고 잇든것의일이다 十八年辛巳에 는 洪英植 魚允中 朴定陽 趙秉稷 閔種默等이 日本視察로 서 그文物을調査하엿고 金允植은領選使로 天津에가서 北洋大臣인 李鴻章과應酬하며 從事官尹泰駿과 生徒工匠을거느리어 그西洋機器의學을 硏鑽하고잇섯고 十九年壬午봄에 統理機務衙門이 設置된後 堀本禮造의 新式士官敎鍊이잇섯고 二十年에는 機器局을두어 機械工業 施設의 始初이엇고 典圜局 博文局이 딸어서 設置되엇스며 魚允中은 西北經略使로 任命되어 昨年인壬午겨울 淸國의 吉林將軍의 行文이잇서 北間島地方의 朝鮮『越墾民』을 刷還하라는 要求가잇섯스며 魚允中은 國源에가서 越墾民의 哀訴를듯고 白頭山의 定界碑를 探査하면서 淸帝國을 對手로서 國家的인 一大抗爭을 일으키든터이엇스니 이처럼 國際的 處女地帶인양하든 朝鮮에서 國際的衝動과 國家意識과 民族的情熱이 三位一體的으로 一時에 엉킨고 꼬피고 올꼿으로 소사오르든 時期이라고하면 스스로 그國民의先頭에서서 時代創造의앞잡이가 되려하든 開化獨立的인 意圖가 저절로 紙面에 나타날것이다 이제東方數國民의 近世史를一瞥하면 日本維新의歷史는 그華胄와 武士의階級들이 王室을 奉戴하고 開國進取를 斷行하야 새人民을 領導함에 成功한者이오 淸國은이를 시늉내다가 失敗한者이니 康有爲等의 戊戌政變이 이를證함이오 朝鮮에는 甲申政變과乙未八月事變이란者가 모다그歪曲한表現이라 博文局의 旬刊新聞은 實로이러한 情勢中에 官報이면서 그開化進取의先鋒으로 되어든것이다

不敬記事筆者 黨部藍衣社가隱匿

【上海五日發聯合】五日午前十時 出頭命令을바든 雜誌新生의 不敬記事執筆者 易水에 對하야中國側 檢察當局에서는 今朝에至하기까지 易水의 居所를 探知치못하고잇는데 各方面 情報를 綜合하면 易水는 事件이 表面化하는 同時에 中央黨部、市黨部및 藍衣社等의 周到한 保護下에巧妙한 姿態로 숨겨 이때문에市政府 或은法院은 엇절수

蘇聯大使 外相과交涉續行

【電通東京電話】駐日蘇聯大使유레네프氏는 六日午前十時四十分外務省으로廣田外相을 訪問하고 五日에繼續하야 日滿蘇三國共同委員會設置問題에 關하야交涉을 續行한바잇섯다

陸相重大進言으로 首相再考慮決意

國體明徵問題의情勢를聽取 聲明發表는二十日頃

【東京電話聯合】五日의 閣議散會後 國體明徵에 關하야 林陸相으로부터 重大進言을바든 岡田首相은 即時 陸相의 進言에 基하야 白根內閣書記官長을 招致하고 同問題에 關한 右裏方面의 諸種情勢를 聽取하고이後의 處置方法其他를 協議하엿는데同問題를 總理로 事態의 重大急迫에鑑하야 岡田首相은 드되어 政府로서는 再考慮하기로決意한 模樣이다 그런데 政府는同問題 取扱의 態度에對해서는 特히天皇機關說排擊論其他에 不觸하고모다 國體의 明徵問題에 努力할터이다 即 政府로서는 國體에 對하야 疑義를 生케할 憂慮잇는言辭는 이것을徹底的으로 取締할決意를하고 이것을聲明形式으로할는지 首相談으로할는지 或은政府의聲明으로할는지 今後다시 長老閣僚會議와 後藤內相等과 協議한다음 決定하게될것이다 그리고 右聲明發表의 時期에 對해서는 美濃部博士에 對한 司法處分이 決定되는것이나 又는 來七月二十日頃 小原法相이 旅行하게 되므로그以前 暑中休暇前에 行할것으로보인다

二大名畫同時封切 六日부터
小牧師 十一卷
카라반 十一卷
本社의犧牲的大壯擧
興行界初有의大偉觀
特別料金으로 獨占上映
團成社

山崎農相의 水害報告

【電通東京電話】山崎農相은五日의 定例閣議에서 今回의西日本水害에對하야 如左히 報告하엿다

▲浸水面積、十六萬七千町步中 北九州 九萬六千町步 京阪神을中心으로한近畿地方 三萬八千町步 中國地方 一萬六千町步 ▲流失埋沒面積 七萬三千町步(福岡、熊本、佐賀은不含) 福岡은 現在判明된 被害는植替를要하는 稻田一萬五千町步中一萬町步는 苗不足인데이것은 直播로損害를 補充할모양이고 損害額은 正確히 判明되지안헛스나七、八千萬圓可量이다

擁護法發動前에

加奈陀의最後態度聽取

【東京電話聯合】日本政府의 對加奈陀 通商擁護法發動은드듸어 八日의關稅調査委員會總會의 決議로서 最後的措置를 斷行하기로되엇는데 廣田外相은 國內의 最後手續完了를 目前에두고 다시 加奈陀政府의 意嚮을 打診하려고 五日 加藤加奈陀政府의 最後的對日態度를 確探하기로되엇다 따라서 加藤公使는 六月中에 議會終了後의加奈陀首相베네트氏를 訪問하고 六月二十一日 加奈陀政府의 要求에 따라 提出한 日本側의 貿易調整具體案에對하야 加奈陀側의 正式回答을 要求할터인바 右加奈陀側 回答은 事實上 日本加奈陀通商交涉의 最後回答이므로 重要視되는데 日本政府는 베네트首相의 回答如何에不拘하고 通商擁護法의 發動은 旣定方針대로斷行할터이오 加奈陀政府의對日通商政策의根本에對하야 反省의빗치보이더라도 이新事態에 即한 日本加奈陀新通商交涉은 通商擁護法發動後에 다시行할것으로보인다

무首相의一令息 爆擊隊參加

志願兵으로東阿遠征

【電通羅馬四日發】伊太利의 對에 强壓政策을 繼續하고 東阿의 風雲은 畢竟急을 告하고 잇는 이때에 못솔리니 伊首相은 數週前 愛見빗토리오(一七)及 그루(一七)의 兩君에게 對하야伊太利의 飛行免狀을 授與하엿는데 五日 다시 兩君에게 對하야 東阿遠征從軍偵察爆擊隊로 伊領에리트리아行을 命하엿다 兩君은 航空志願兵으로入隊後 專히 戰技訓練을 싸하伊太利의 空中勇士답게 부끄러울바이업는 技倆에達햇스므로 못솔리니首相도드되어 에리트리아行을許한것이다

本紙夕刊六面

宋哲元軍部隊 又復越境侵入

雪頭城子警察署襲擊

【新京五日發聯合至急報】五日午後八時 承德으로부터 當地에 來한 情報에 依하면 三日午前二時 宋哲元軍 約百名은 暗夜에 乘하야 滿洲國內에 侵入해와서 滿洲國 雪頭城子警察分署를 包圍하고 攻擊을 開始하엿스므로 分署長 吳世璽氏는 部下八名을 引率하고 이에 應戰하엿스나 衆寡不敵으로 吳分署長은 腹部에 貫通銃傷을 負하고 警士 劉文部氏는 兩足에 重傷을 당하엿다 宋哲元部隊는 分署의 書類、物品、馬五頭를 掠奪하고 分署에 放火한後 逃走하엿다 急報에 接하야 小廟에 잇는 芝田警察指導官은 警察隊員百名을 引率하고 現地에 急行하엿다

詳細報告기다려 斷平處置

【新京五日發聯合】關東軍에서는 三日 突發한 宋哲元部隊의 不法越境 石頭城子滿洲國警察分署襲擊事件에 關하야 極度로 激昂하야 北平에서 土肥原少將與宋哲元氏間에 締結된 察哈爾協定을無視한것이라하고爲先 張家口駐在 松井中佐를 通하야 察哈爾政府代表 秦德純氏에게對하야嚴重한 抗議를 提出하엿다 이에 對하야 秦德純氏는事件의 重大化를 두려워하야 五日 陳謝의 意를 表하고 事件一切의 責任을 負하엿다는旨를 通寄해 왓는데 關東軍은 現地官憲及承德特務機關의 詳細한 報告를기다려 斷平處置를 할터이다

國民黨部員 아즉天津에蟠居

【天津五日發聯合】河北에서 國民黨及 黨部員은 完全히 撤退되엇슬터인데도 不拘하고 아직 天津總商會의 年先熙를 首領으로하는 黨員二名의 黨部委員으로 組織되어잇는것이 判明되어中國側의 不誠意에 日本軍當局도 憤慨하고잇다

須磨總領事 唐次長과懇談

【南京五日發聯合】須磨總領事는 五日午前十一時 外交部에 唐有壬次長을 訪問하고 不敬事件에關하야 거듭 日本側態度를 說明하고 同三十分 辭去하엿다 이어서 雨宮武官도 午後三時 唐有壬次長을 訪問하고 同一問題에對하야 懇談하엿다

小麥市價統制案 加下院通過

【電通오타와五日發】加奈陀下院은 政府提案의 小麥市價統制法案을 五日 通過시켯다 右는 市價調節局을 農商務省內에 新設하야 小麥의 最低市價를 決定해두고 市勢가 이보다 下落할때에는 政府에서 買上하야 市價를 調節한다는것이다

著作權審查會案

改正著作權法實施와 十五日로實施決定

【電通東京電話】改正著作權法實施와 同法規에 基한 著作權審查會設置案은 五日閣議에서 決定되엇스므로 內務省은 一兩日中에 이것을 公布하는同時에 드듸어 委員人選을 本格的으로進行하야 來十五日부터 이것을實施하기로 決定하엿는바 그審查事項으로는 法規에 基하야

一、著作權에 關한 紛爭調停

一、著作權所在의 認定

一、外國著作權의 飜譯、上演、演奏等에 關한 利益金의 認定

一、著作權侵害에 對한 賠償金의 認定

等에對하야 內務大臣의 諮問에 答申하기로되엇는데 內務省에서는 本審查會를 事實上 文藝統制의 最高機關으로생각하야 文藝國策樹立上그積極的活動을期待하고잇슴으로 그成果는注目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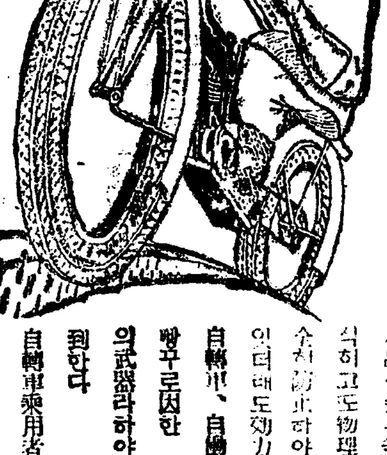
人事·集會

▲今井田政務總監 黃海道農村振興狀況視察次九日부터 三日間出張

八面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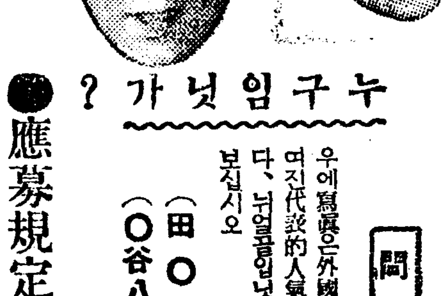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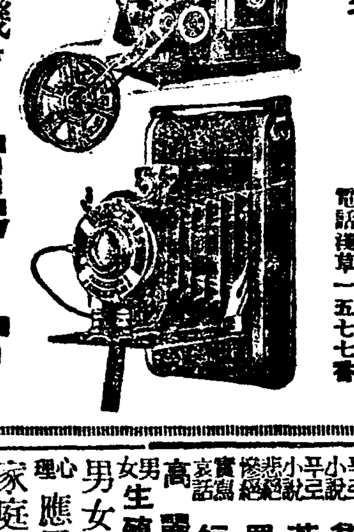
本社의 新社屋落成式 吉日을擇하야 七月六日에 擧行。◇ 이날에 天朗氣晴、大自然도 아리를 祝福。◇ 海內、海外 千餘名士 구름가티 모혀들어、太平通 큰거리는 人山人海를 일우엇고。◇ 푸른 하늘 노픈데선 飛行機爆音 天地를 震動。◇ 하늘이 도웁고 사람이 和하니、朝鮮日報의 將來오족 洋洋由哉。◇ 자라거라 朝鮮日報、굿거라 朝鮮日報、朝鮮으로더부러길게。

愛輪家諸氏에急告!
劃期的世界一大發明品
パンク豫防劑出來
自轉車オートバイ·自働車リヤカー人力車各用
共印ゴムの素 定價六十錢
本品의一大使命
運轉走行中(自轉車、리야가ー 自働車、人力車、오도바이)等의突然히이러나는빵꾸의大災厄을豫過하야運轉不能에陷하얏슬적에本品의自動的作用으로因하야 即時即效로빵꾸를完全히修理防止하야走行을繼續식히는것이 本品의特長인使命이다



……可驚할奇蹟的効力을……
本品은 타이야의 자부속에 한번너허두면 자부의忍耐力을無限히增長식히고 도物理化學의 作用으로 몃백번의 빵꾸라도 完全히防止하야 修理의必要가업고 氣候寒暖의變化가 잇더래도 効力에 아무障害도생기지안는다
自轉車、自働車、오도바이、리야가ー、人力車等의 빵꾸로因한 不安과損害를 未然에防止하는能率增進의武器라하야 目下到處에 大大的實讚을바더 注文이殺到한다
自轉車乘用者各位其他專門家의實驗을經하야 大歡迎大好評을博受하고잇다
▲百聞이不如一見! 꼭한번實驗하라!
▲最寄의專賣店이나特約店에서사십시요
◎朝鮮滿洲關東洲各地專賣特約店販賣店大募集
製造元 東京 三共商事社
朝鮮滿洲關東洲 總一手販賣店 京城府鳳翼洞八八番地
外交員募集
友永社 電光 二六七七番

京城鍾路二丁目
完全修理
時計 普信堂時計舖

재미잇는 아러내기 答案大募集

누구입니까?
問題
우에寫眞은外國까지도알려진代表的人氣女優입니다、누구입니까? 맛처보십시오
(田○絹○)
(○谷八○子)
●應募規定
▲答과、希望賞品과朝鮮日報名을分明히적어서、片紙中에返信三錢切手一枚同封郵送할事(發表는紙上에通知함)
▲片紙속에住所氏名을쓰고、封筒에三錢切手를부칠것、
▲締切 本日부터十日以內에投函한것이有效、發表는七月中旬
▲正解者多數時는嚴正公平히當選者를選定하야、ツバメ映寫機나、ツバメ寫眞機의어느것이든지希望대로一品式進呈
▲當選에빠지신全部에게도相當한副賞品을漏洩업시呈上함
宛名 東京·淺草·北富坂一九 寫眞機 映寫機發賣元 玄光社 懸賞係 電話淺草一五七七番

正解者 五百名에게 ツバメ家庭映寫機나 ツバメ高級寫眞機의 어느거나二種式 進呈

紙上作品展覽會 梨花女高一·二學年等
月刊 아이생활 七月號
山水歌 산으로바다로 ……作曲 李光洙 朴泰俊
가장귀한여름방학 ……朴仁杰
작은 ……
천주교회를봄 ……
桃花와 ……金光允
칠월칠석 ……
童謠 두고 ……
童話 못사김……
小說 小英雄 ……
小說 연돌소제부 ……崔仁化
有名畫報·偉人傳記·其他滿載
年讀者謝恩募集 卓上玉時計 謹呈
讀者俱樂部 讀者와記者 거북이新聞 상타기
地方支局大募集
京城鍾路二丁目九一 아이생활社 振替京城一五一五
一部十錢 一年一圓

高評書籍
文學講義錄 特六十錢
英鮮對譯 格言千篇 特價五十錢
現代新語釋義 四十錢
珍奇談話 東西古今 册五十錢
小說 貧의淚 五十錢
小說 苦學生 特價册
悲慘 罪惡의씨 三十錢
實話 短篇 廿五錢
高麗太祖 特價八十錢
男女生殖器圖解全書 五十錢
男女의秘密 五十錢
心理 應用魔術全書 五十錢
家庭辯護士 一圓
빠이론詩集 一圓二十錢
靑年의獨立生活 五十錢
學校卒業 成功立身案內 五十錢
쉑스피어와그生涯 六十錢
어이哲學 六十錢
世界一流 奇人奇傳錄 特價六十錢
朝鮮의名勝古蹟 五十錢
金東仁 創作集 論文集 九十錢
目 一圓
銀行要覽 特價一圓
家庭醫學全集 一圓卅錢
世界改造 十大思想家 一圓廿錢
泰西名作短篇集 一圓
裸體美人圖 十二枚一組 五十錢
確實避姙法 三十錢
任意生子法 六十錢
男女交際의秘訣 五十錢
書式全書 一圓
苦痛의束縛 一圓
京城西大門外阿峴里
振替口座(京二四六一番)
文昌社

七月三日より超特作大興行
新界驚倒!!破天荒の超豪華大番組!!全米映畫界の巨匠の第一人者たる二大巨頭キャプ、マイルストンの二大巨篇の併立獨占大封切。
一、コロムビア超特作日本版
監督リュイス、マイルストン
主演ヴイクター、マクラグレン
其他人大スター大共演
每を謙ふ消民
『西部戰線異狀なし』『雨』と多角的な才能を示した巨匠マイルストンが三年目の沈黙を破つて彼の全生命を賭し映畫界へ大紋を投ずる畢生の超大野心篇!!
二、コロムビア超特作日本版
監督フランク、キャプラ
主演ワーナー、バクスター マーナ、ロイ
其の夜の眞心
リスキンが綴りなす話術の魅力!! キャプラが持つメガホンの魅力!!『或夜の出來事』の名コンビ、再び組まれた二度目の出來事!! キャプラとリスキンにそして其の夜の眞心の頭上高く高らかに
洋畫 邦畫
七月六日부터超特別大興行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半 午後二時半、七時半
本社의犧牲的壯擧! 二大超大作日本版
R、K、O、엠、지、엠、 超大作 文藝、메트로、골드윈、메이어 名作의女子 世紀의名匠 죠、쿠、캐사린、햅번主演
小牧師 十一卷
離陣紀原作의名作、名匠의미레스의最高의神技!는世紀의女性햅번의最大文藝大作을낫다、感激과눈물에어린純情、戀愛、情熱의悲劇!!
◇폭스超大作日本版 에리、샤르루渡米第一回作品
카라반 十一卷
로레타、영、찰스、뽀이에 共演
名匠의才腕、하이만가라의大作을낫코、藝術의極致를보여줄 音樂의旋律、燦爛한가리아-大平原에울려퍼지는黃金篇
離別의曲、喜劇의…名匠의大巨篇 나는밤그대는낫
JO太秦全發聲映畫
모방의人生
おれは次郞兵衛
柳家金語樓主演
全鮮第一 映畫殿堂 電光二八九五 團成社

祝朝鮮日報社新築落成記念

仁川

仁川府尹
永井照雄

仁川府海岸町
朝鮮取引所米豆取引員
東取引店
主 趙俊鎬

仁川府山手町二ノ五
茂原鋭一
電話九一三番

朝取證券取引員
金益證券株式會社

朝取米豆取引員
康益夏商店

仁川商工會議所
會頭 吉田秀次郎

仁川府內里
和信仁川連鎖店
主 金弼濟
電話一一一七番

仁川輸移出白米製造業組合

株式會社
朝鮮取引所米豆取引員組合

仁川府內里一三六
李興善

金剛鶴及金剛燒酒！
優等受賞前後二十三回
仁川 朝日釀造株式會社

仁川府花芳町二丁目
天一酒仁川分工場
電話一一二四番

仁川物産客主組合

仁川府柳町
朱命基精米所

仁川府内里
米國テキサス會社代理店
石油 礦油 輸入 販賣商
合資會社 大洋商會
支店 海州邑北本町 瑞山邑內

仁川府外里
金允福

仁川府龍里六十七番地
仁川信用組合
電話七一六番

仁川府外里
龍洞家具商會
主 趙炳潤

仁川府海岸町二丁目五
鹽商 崔炳熙

仁川府山手町二의五
金致洙

京城府南大門通
日華ビル第一號室
東洋商事株式會社
電話本局長二四四七番
社長 金健永

仁川府海岸町三丁目一番地
株式會社
朝鮮取引所仁川支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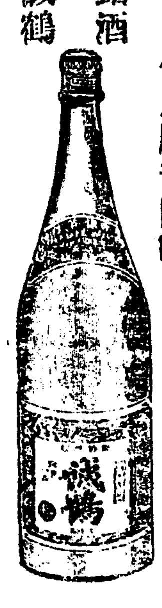
仁川府港町一丁目
富川通運組合
電話六三一番

仁川府本町三丁目四番地
株式會社朝鮮取引所米豆取引員
㊄金仁梧商店
電話 [illegible]

仁川府栗木里
宋在鵬

仁川府龍里
仁港劵番
電話八二六番

銘酒 誠鶴
仁川府龍岡町
深見釀造場
深見寅市



仁川府内里一三四
綿絹布店
開豐商會
電話七七〇
振替京城七八八八

仁川府龍岡町五五
李種潤
電話三一一番

仁川朝鮮酒酒造組合

仁川府内里一九六番地
朴昌遠

仁川府牛角里
仁川釀造場
主 崔炳斗

仁川府柳町二七番地
太白藥酒濁酒製造元
鷄林釀造場
主 宋斗昇
電話八八五番

仁川金曜會

仁川府山手町
太田忍

仁川府港町六丁目十五番地
朝鮮運送株式會社仁川支店
支店長 太田忍

京城電氣株式會社
仁川支店

仁川府内里二〇九番地
金泰性

株式會社
月尾島遊園
專務取締役 今井省三

仁川府栗木里
仁川勤業所

仁川府松林里二〇四番地
大東釀造組合

仁川府龍里
張錫佑

仁川府寺町
劉君星

新文化建設提唱

演劇文化發展과 그樹立의根本途程

朝鮮에잇서서 다른文化의 傳統的財産은 그빗날것이 적지안다고할수잇지만은 唯獨演劇文化에잇서서만은 그를承繼할 遺産이 업섯음이 크게恨되는일이다 勿論 假面劇、人形劇等그演劇의 歷史가 업는것이 안이오 土月會 以後新劇運動의 새로운餘火가업는바안이로되그것은 우리에게 조흔遺産을남기지못한채形跡을 감추어오늘날 우리의 現段階演劇運動은참으로 沈滯와不振속에 허덕이고잇지안흘수업게되어잇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段階에 잇서서어떠한 演劇運動의 指揮的精神알에 出動하지안흘수업는 모-멘트에 이르게되엿나니 그러면 우리의 運動은 어떠한코-스로나아가야할것인가? 이는 演劇文化의 發展이 社會文化發展段階에 寄與하는바 적지안이한 任務를遂行한다는意味에서 이제 諸家의高見을 들어演劇文化建設에 크게웨처보려한는것이다

朝鮮劇壇의現勢와 今後活動의多樣性

柳致眞

今後의조선의演劇運動은 演劇專門劇團의出現이 업는以上 그發展의온전한將來를 期하기어려우리라고 나는생각한다。

대체로보건댄 目下의조선의演劇團體는——

一、아마추어劇團
二、商業劇團

以上의 두가지에分할수잇다。一의아마추어劇團에屬하는것으로는 劇藝術研究會가는研究劇團이잇고、二의商業劇團에屬하는것으로는 研劇舍、椒金座 新舞臺等等의興行劇團이오는것은 여기에 再言하지안허도 알일이다。

그러나 吾人은 後者의商業劇團에다가 將來조선演劇運動의모든것을 맥길수업다。그理由는그들은『演劇』의探求보다도오히려興行을第一位에두는까닭이다 그리고 그들中에서 先見의明이잇는技術者는 혹 이러케長嘆息하고

商業 劇團의門을등지고 나오는것을 나는본다。即——『興行劇團의方式으로는 도저히 조흔技術을發展시길수업다』는고

그러면 前者의劇藝術研究會의方式은 어떤가? 劇藝術研究會의劇人은 여태까지 一方다른職業을가지고 그職業의餘暇를다서演劇運動의 理論과實際에投身해다。그리하야 그동안 벌서五年이란歷史를 그렷다。그러나 이純아마추어的方式은 演劇運動의方向을 그本然的理想에서 삐뚜로나가라는危險을 充分히 防禦해주기는한다。即 劇藝術研究會의目標가 出發時와 至今과 조금도變함업시 한결가티 나아가는것은 그때문이다。

그러나 이 아마추어的態度는적 消極的으로 되기쉽기때문에演劇戰線을 全幅的으로

戰取 시킬氣運을어때롯는수가 흔이만타。그理由는아마추어劇團은 劇團自身이 그劇團員의生活을 保障못해주기때문에 그劇人이 自己의全時間을 演劇運動에다가 提供하지못하는까닭이다。이와가튼를을다서 아마추어劇團에는 期하지안튼沈滯가 간혹 襲來하기도하는것이다

演劇運動은 다른어느 藝術運動보다도 時間과努力을 만히잡어먹는것이다。그때문에 各部門에關한演劇人이 그의全時間과全精力을 그일울위해서 바치지안는以上 그演劇運動은 萬全의發展을 도저히 期할수업는것이다

여기에잇서서 비로소 우리는우리의劇人이 演劇에專門的으로

從事 할수잇도록 해주지안흐면 안될것이다 即 演劇專門劇團의必要가 이로말미아마 提唱되는것이다。

그러면 演劇專門劇團의出現을위해서 무엇이 그중必要할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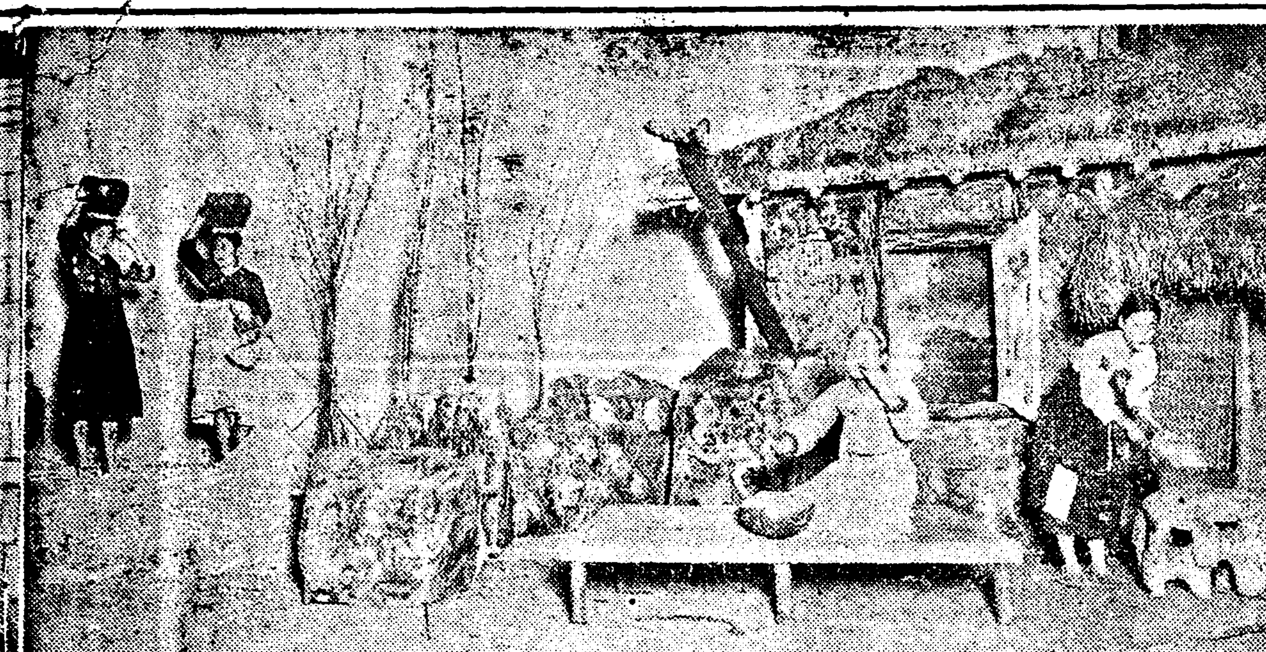
一、經濟力
二、技術者

以上의두가지演劇團體의 經濟力과 技術者養成이 무엇보다緊急하다는것은 여기에 새삼스레贅言할것도 못된다。 그러면이(一)의

經濟力 은어떠케해서 土臺를 작만할것이며 (二)의技術者는 어떠케해서 어들것이냐?

이問題에이어서는 우리는서로特히朝鮮的特殊性을 充分히 짐작하야 조흔具體案을 세워야할것이다。(나게도 한두가지腹案이잇스나 여기에는 紙面關係로詳述치못한다)

그러나 演劇專門劇團의出現은外國의前例로보면 商業劇團의變貌로써되는것이아니오、아마추어劇團 即純研究團體의 理想을延長시키면서、한가지 그經濟力의解決로써出現되는것이다。이런意味로보아서 劇藝術研究會가 다은機會에 演劇專門劇團으로서發展하라고、至今準備하는것은 首肯할바이다。即 劇藝術研究會가그出發當時에意圖한 第二期的活動에 들린는것이라고하겟다 (끗)



櫻花園(左)와 버드나무선洞里 風景(右)의 舞臺面

演劇은그民族의表情이외다

朴英鎬

광대의 役割—이것을 朝鮮演劇의 傳統으로 보는이가 잇습니다 그리고 一方에는 歐羅巴와 去來단골을 피하려는이도 잇습니다。

그러나 讀者가 다朝鮮新劇으로서의 지닐바 그領分과 資格을 그時代의 範圍라고 보고그리고 그民族의 表情이라고보는것이 어느程度까지 眞理에가까운 定義일진대는부재다업하고朝鮮의 온율과 오늘날 朝鮮人의 表情을 구김살업시 들어내놋는것이라야 합니다……

이것은 決코 梁柱東氏의 民族文學派가 내세우는 그러한朝鮮이 안임것은 勿論이고 古典(漢籍)에 對한、또는海外文學에 對한 正常的攝取를 無關하도안이외다。

적어도 世界가 보는朝鮮과朝鮮이보는 世界의 領域에서 어떠約束된 情緒의裏地를 차저가는 그러한 眞面目의 朝鮮의表情이라야합니다。

우리는 이權威의 모든 勢力을 나과잡고 新劇樹立의 방침대(基準)를 規定해야합니다。

다음은 一、天分과 良心을겸전한 劇作家의出現、二、文學人과 劇場人과의 特殊한結合 三、俳優의 敎養及演出者問題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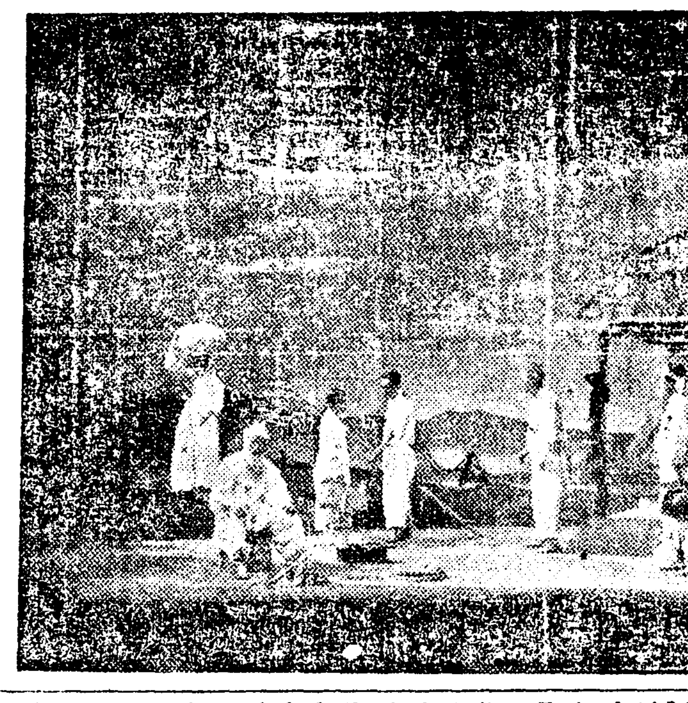
但 돈과 興行師에對한 長太息은 그만둡니다。

劇團組織等

方仁根

朝鮮의 演劇運動을 樹立하자면 아래와가튼 諸條件이 具備하여야 될것으로 생각한다。

一、文藝家들이 脚本을 만이쓸것
一、新聞雜誌에서 脚本을 만히揭載할것
一、演劇을 主로하는 常設劇場을 設立하여야할것
一、現行劇團의 演劇레벨을놉힐것
一、劇研究團體를 組織하고 자조公演할것
一、名作家名俳優가 出現하여야할것
一、民衆이 演劇을 理解하도록 宣傳을게을리하지아니할것
一、有志가 이方面에 相當한出資를하여야할것 以上



在東京學生藝術座上演『나루』의 舞臺面

興行劇淨化論의危險
—一의序言的論爲의展開—

李軒求

佛蘭西十九世紀末의 思想家요 評論家인쥐에밀·파-게가 다음과 가튼意味의 말을하엿다—演劇에서 우리는 네가지種類를

發 見할수잇다 하나는 劇場의舞臺에서보다도 오히려 形象化된戲曲에서 演劇의 生命을 把握할수잇는것、둘재로는 劇場에서보는 俳優의演技와 戲曲의生命이 一致되는것、셋재로는 形象化된戲曲보다도 舞臺에선 俳優의演技에서 더훌늉한 演劇에感銘될수잇는것、넷재로는 舞臺에나타난演劇이 形象化戲曲의性質을 가지지못할뿐아니라 演技그自體까지 演劇의生命的構成要素로 볼수업는것—이네가지라

나에게 試驗된바 課題—『興行劇의淨化』를 念頭에두고 생각할때 이感銘되고 表裏잇는파 [illegible]

汚損하는 境遇가 正히 이것이다。둘재는 演技者의表現이 充分히 또完實하게 戲曲의生命을 살려나가는것을 일음이니 이것이 眞正한意味의 劇藝術일것이다。다음 셋재는 演技者의藝術者表現이 未完成된 또는不完全한戲曲을 그戲曲의存在價値以上으로 發揮식히는것이니 名俳優가表現하는 亞流作家의戲曲은흔히 이러한結果를 나타낸다。그리고 끄트로 말한것은 戲曲아닌戲曲을가지고 俳優아닌俳優가 似而非的舞臺行動하는것을 指摘함이다。

實 로 우리自身이가장슴讀한面貌를가지고 朝鮮의 劇界를 展望한다면 이中에서그어는것이 가장眞切한 朝鮮的表現이라는것을 容易히 發見할것이다。

[illegible] 여잇다。假令 어떤蛇蝎視되는非人間的行動속에도 그의 生存하라는 意圖에서의 結果라는것을 우리는 豫想할수도 잇스며 또 推斷할수도잇다、그러나 이러한 生存은 너무도 悽慘하며 일우는바 實로

悲 劇的이다

우리는 우리가 일커려지는興行劇이『파-게』의分類에 依한다면 그셋재것이나 또는 그넷재임을認定하리라 그러나 그셋째라고 敢히 말할勇氣를 가지기에 우리는 너무도 先天的으로 善良하여와다

그러면 한個의戲曲으로活字化하야남을수업는바、戲曲을가지고 舞臺行動을하는그들 다만그들의 悲慘한生活 아니生存을爲한努力만으로써 그들의舞臺行動을 노 [illegible]

公演費辨出과 眞實한飜譯劇運動

鄭寅燮

글세요 무어라고 말슴드릴까요—이에 對해서는 여러사람이 여러 말로서 論議한바이지마는 結局은 公演費問題가 그中에서 第一큰줄압니다。

在來로 이問題를 말할때 脚本이 업는니 民衆의 理解가적으니 檢閱難關이잇는니 또는適合한 人物과俳優가 出現되어야 한는니 劇場이 不充分하는니演技가未熟하는니……혜지마는 다 따저보면그것은 다 그러케 先決問題로볼수는 업는것입니다。

脚本에對해서 飜譯劇과 創作劇도 힘대로 選定하면 그만이지 百사람이면 百사람의 마음에 다마질수도 업는것이요 入揚者 多少와人氣(?)를 云謂하는것도 公演費의 確立만 確立해노면 收入을 全然度外視해도 無關할것입니다。따라서 民衆의 理解云云하지마는 低級趣味도 殊算主義를 떠나면 避할수도 잇고 그러타고 檢閱업시 秘密公演하는법은 생각할수도 업는處地에서 그것은 어데까지든지合法的인 限界를 직히는 道理外에는 別수가 업는것입니다。그리고 또 한가지 主義的 育傳을爲한 特殊目的의것이 아닐진댄 이 檢閱도 그다지큰 問題가 되지안흘것입니다。

人物에 對해서도 指導의 誠意를 가진者가 업는것도 아니요 그技術도 힘자라는데까지하면 그만일것입니다。또 俳優의 量과質도 決코 憂慮할것이아니니 朝鮮의 現實的 水準을 階段업시 飛躍할수도 업는것입니다 그리고 劇場의缺乏도 어떤 常設을 빌릴수업스면 現在의다른 會場도 借用해서 하면 그만이지 朝鮮서 理想的劇場의建立云云도 업는것보담은 조치마는 그것업시는 아모것도 잘안된다는것도 철업는 空想에 不過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俗見일는지모르나 公演費만 잇으면 爲先問題가 解決될것가는데 理想主義的 理論과 計畫은다 그만두고 一回公演에 最少限度로三百五十圓만 잇으면 僅僅히 할수잇으니 이것도 그支出에서三百五十圓을 다收入식히고 또는 그以上利益을 볼랴고 하면 그 公演費 가 無數한 苦難을 겪글는지 모르나 거기서 百圓만 [illegible]지、어렵운 니것도아닙니다。그러니 問題는

每回 二百五十圓만 생기는데가 잇다면 그대로 해나갈줄 압니다、勿論 職業的으로 月給支拂制度라 하는것이아니요 同好者끼리 모이는것이니 그들은 生活을 딴方道로 할수잇는 사람들이 主體일것이요、한사람마다는 僅僅五十圓의 有給으로 主務하게 할수잇는것입니다。

그러면 三百五十圓 收費에서 二百五十圓은어데서나오는냐가問題입니다。나는여기 對한答으로는 或은 資本家의 合同 또는有意의同好藝術家의 寄附 或은 連帶保證의 借用等……모다가 聯想되지마는그것이 그러케容易하지는 안흘줄압니다。그러나 그것이조흔意味로 可能한 範圍內에서는 그러것도 利用할수잇지마는 그러는동안에 實費象觀人을 二百五十名만 固定的으로 求하면 되는것이니 그 有利한 細目은 略하나 每人一圓에 觀劇券 二枚式을 拜呈하는것도 一例이나마何如튼 別別理論과 計畫案은 다 그만두고 實質的으로 이案主義로 나갈수는 比較的 쉬울줄 생각됩니다。

그리고 公演經營에對해서 當事者가 個人의榮譽를떠나 親切하고 겸손하고 同志的으로 연달하며 會計를 私念업시 公證正大하게 明白히하며 誠意와奉仕的 態度를 가지고 對할때社會의 贊助도意外에 만흘것이오 손도 서로맛고 잇는 確實性이 잇는것입니다。나의적은經驗으로는 二百圓의 豫算으로 約三百五十圓의收入도 식혀보앗습니다。이것은 特別例일는지모르나 經營을 注意해서하면 [illegible]三百圓支出로서 二百圓 收入도 그다지어려운것이아니[illegible] 이런 境遇에는 이案은 더욱 쉽게 되는것이요大器晩成主義로 나아가면 結局事業은 꾸준히 發展될줄압니다。

以上에서 卑近한 意見을 말햇사오나 燦爛한 術語로 冗長하게 事大主義式의 論議時代는 이미 다지내갓습니다 特別한資本主와 有志의寄附行爲가 업는限 以上의 길밧게 別道理가업는것이니 이것은 그러한 特別人士의 出現을爲한 潛定的方法도되고 現下의가장 可能한길일줄압니다。映畵全盛에 比하야 演劇은 實로危期에잇습니다。이러는 가운데 劇藝術의 史的價興이 世界的으로 언제나 올는지는! 한두곳의例外를 除하고는 各國이大略同一한 苦難에잇는데 朝鮮의新劇樹立이 그生命만이라도 [illegible] 多幸이겟지요 다-끗-

俳優들의告白(續)

★……尹逢春

나는 近年에와서 어떠한映畵에 出演을하고 어떤役割을꼭해보고십다는생각은極히 적습니다 映畵도 만히보고 冊도만히읽어야하겟다는생각뿐입니다、그러케해서 어떠한映畵에어떠한 役이던지 산人物을表現하고십습니다 무르시니 이러케 對答하겟습니다、興行市場에내여놋코시픈映畵의役은 暗黑街에나타난 쪼-지 팡크롭트、最後에中險에나타난 콘나트、파이트 가튼役을 마러보구십습니다、이런役을맷기면 나는自身잇게 한번나서고 십습니다

謹告

劇界全面的으로 原稿를仰請하엿스나 時日其他關係로 原稿가 未着되분이 만허 不得己 실리지못한것은 大端遺憾된바이다 (編輯者)

仁

惡疾豫防에 一時라도업지못할

仁丹은 飮食物及空氣中으로부터 侵入하는 諸種의 病源菌을消毒하고 胃腸을健全케하고 口臭를 除去함으로 惡疾流行의 [illegible]이 잇는 此際 隨

銀粒仁丹藥價

富士容器附	三百二十粒	二十錢
滿洲容器附	四百粒	三十錢
日滿케ー스附	七百粒	五十錢
瓶入(흠容器)	九百粒	五十錢
德用分	一千粒	五十錢
德用(瓶入)	二千二百粒	一圓

쓰기조키로 이以上가는齒磨는 絶對로다른데업다

獨特한製造法에依하야適當한濕氣가保存되고 따러서 飛散치안코 치솔에잘붓는 香味獨特한唯一特許齒磨

一罐二十錢

한이다。

實 로 우리自身이가장소중한頭腦를가지고 朝鮮의劇界를 展望한다면 이中에서그어느것이 [illegible]한 朝鮮的表現이라는것을 容易히 發見할것이다。

「興行劇團이 말하는 實로 넘우도 評價할지못한 低劣한意味으로써 생각되어야할性質의것이다 적어도 演劇이 가지는바 藝術的生命이잇다면 決코 이러한意味에서 扶殺되어야할文字로써 表現되여서는안될것이다。사람은 生活하기위하야 아니 더的確히말하면 우리는生存하기爲하야 가지가지의行動ー生存鬪爭ー에接觸되[illegible]發良하여와다

그러면 한個의戱曲으로淸化하야 남을수업는바、戱曲을가지고 舞臺行動을하는그들 다만그들의 悲慘한生活 아니生存을爲한努力만으로써 그들의舞臺行動을 노피 評價할수업는것이라면 問題는 極히 單純하게 解決될것이아니다

그러나 淨化하는것은 모든不純한雰圍氣를 淸潔하라는데서오는말이다 그러라면 어떠케 이 混濁된그空氣를 淸新할수잇슬것인가? 生活과生存과行動을 舞臺우에 비친바 이

職 業的集團行動에對하야 우리는 어느程度까지야 그들의情景과 또는 거이 習慣化된 그들의어떤演技의能熟(?)도理解할수잇다。그러나 이理解이矜恤으로서 問題는 解決될수업다

率直히ー實로廉恥업시ー 여기말할權限이잇다면 우리는 興行劇團에對하야 演劇이 그들의生存을爲하야 한個의武器또는『메되엇』이 될수잇다면 그만으로도 그들을祝賀해야할일이다。그러나 不幸히도 演劇이 그들에게ー다큰모든藝術部門에서와가티ー完全한 生의保障을 約束할수업는限 自暴自棄되는바 어쩔수업는自體의 苦衷을 容許할수밧게 他道가업슬것이다。

嚴 正한反省과批判과 向上의努力을 自己의 나갈바ー코ー스에對하야 보여주지아니하고 스사로歪曲된 때로는 卑越을가지고 거이放恣하게行動하는 現代興行劇界의現狀은 一部識者의 憂慮뿐만이아니라一部의 社會的相愛가 되어야한다。그러므로 吾人은 이課題에對하야 입이지난날에累히말하여온바 劇藝術理解에對한質的向上과 社會的啓蒙의擴充만에서 그根本的解答을 어들것이다。

[illegible]을 다收入식히고 또는 그以上利益을 불라고 하면 그 公演에 가 無數한 苦難을 겨글는지 모르나 거기서 百圓만 나것도아닐다。 그러니 問題는 다ー쏫ー

[illegible] 興이 世界的으로 언제나 음부지는!한두곳의例外를 除하고는 各國이大同小異한 苦難에잇는데 朝鮮의新劇樹立이 그生命만이라 [illegible]

演劇과觀衆의連絡問題

觀客層의 組織과 連絡

金 珖 燮

舞臺압헤 觀衆이어슥스는어다 이觀衆이 舞臺압헤잇다는것은作家의主題、思想、感情을 左右까지도 할수잇다

觀衆 이라는것이 그趣味와 識見力이 低級하던 高尙하던 演劇에서 빼노을수업는 條件이다 萬一 舞臺압헤 觀衆이업다면 그舞臺의藝術的條件이 아모리 完成되엿다할지라도 그것은 산舞臺는될수업다。

그와反對로 舞臺압헤 無數한觀衆이 陣을치고안저서 그精神的生理的 諧和가 一種의 陶醉로 表現될 그러한 狀態에잇는光景을본다면 그全景이 하나의呼吸되는藝術임을 누구나 늣길수잇다。

×

이舞臺와 觀衆이 連絡되는데는 두가지의 길이잇다。

하나는 舞臺가 觀衆압헤 興味의對象으로 나타남이요 다른하나는 舞臺가 觀衆압헤鬪的、批判的或은 高級한藝術的對象으로나타남이다。

×

前者는 人間性가운데 가장움직여지기쉬운 好奇心、興味 짜즈性을 誘發하야 觀衆으로하여곰 舞臺를 떠나는瞬間까지

健全 한意識活動을 無能하게함으로 觀衆對舞臺의關係를 맷는다。여기에데뷔的、享樂的舞臺가 不健全한好奇心、低級한趣味를養成함에도不拘하고 維持되는神秘가잇다。

그럼으로 거기에서는 商業的手段이必要되다。큰廣告와 비라와誇張되는宣傳이 必要하다。게기에吸收되는 오늘의朝鮮現象의大部分이다。理解라던지 努力이라던지 眞擊이라는것은 群衆心理에서는물이나 感情이나 憤怒가티 쉽게 차지지바안이로되 興行劇場에出入하는朝鮮의觀衆은 너무도淸新한氣分과 健全한精神生活의要望이비록娛樂的意味에서일지라도적은것갓다。

로ー마에서는 입속 演劇과鬪牛場이 競爭하야 演劇이敗하엿다。

나아가라 激流에서 어름장에흘러내려가는 어떤夫婦의悲慘한光景을 보지못함을 一年의 恨가리 遺憾스러워하는 群衆이잇다。 또한 물求景가티 滋味스려워하는 求景꺼리도 드문世代이다。實로 모든不純全한

好奇 心과 興味가 넘치는 이契機에서 演劇은 窒息에빠진지도 몰은다。

우리는 眞摯하게 組成되고計畵되고 內容된 하나의演劇을 舞所를 選擇하지안코 舞臺에 올리기를 두려워하고잇다。

여기는 技術問題도잇겟지만 作家를 자래워주고 舞臺의生命을理解하는 觀衆의問題도업지안타。

勿論 大衆이라는 現實을 無視할수는업스면서도 그러한點에서 演劇運動의 一步를推進하는것이 觀客層의組織이 안일가한다。

이것은 近代劇以後의新劇을 理解식히고 그精神을 傳播식히는데도 有利하겟지만 恒常新劇運動이 當面하고잇는 經濟的困難打開策에 有利한土臺가 될수잇다。압흐로朝鮮演劇運動은이未試驗的連絡에對하야最大의努力을拂하여야할新課題에處하고잇다。

劇場을가지자

洪海星

朝鮮演劇運動도 近三十年이나 長久한歷史를가젓다。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이참으로 朝鮮演劇이라하면서 남에게 자랑거리가될것이 업는탓으로『朝鮮演劇을어떠케樹立할까』란難問題가된다

참말 朝鮮社會는 딱하다 『여호도굴이잇고 나는 새들도 깃이잇는데 四千年에 文化史를 가젓느니 우리의 마음을 모아둘무어니하면서 朝鮮社會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둘 劇場하나갓지 못하고 一生을 父母妻子를버리고 出家하야 입때것苦行을하는朝鮮劇場人들은 皮骨만나먼苦行者이다。抑說ー實踐으로빌여줄劇場을建築해서 職業劇團研究團體할것업시 단한번이라도 그들이마음노코 演劇을하도록 우리社會도 實行한다면 바로 그때가 朝鮮演劇이樹立되는 그날이다。우리가朝鮮演劇人들에게도、朝鮮社會가劇場을주어라!

演技그自體까지 演劇의生命的構成要素로 볼수업는것ー이네가지

하나에게 [illegible]된바 [illegible]ー興行

「[illegible]淨化」를 念頭에두고 생각할때 이[illegible] 有效잇는듯파 吟味할必要를 切實히 느끼다。以上에 列擧한 네가지

種 類를 다시 쉬울거解釋하라다면 첫재는 戱曲은 훌륭한 藝術的生命을 가젓스나 演技者의表現이不足하야 이劇術의 生命을 滅殺한다는것이니 우리가 世界名戱曲을 理解함에잇서서 흔히 서투른 演出과演技로말미암아 그藝術的 生命을

劇場建設의 必要性

異河潤

오늘날 劇場하나도 가지지못한우리로서 演劇運動이니 新劇樹立이니 하는것이 오히려지나친말이아닐까합니다 우리는 數年來演劇이나 言論機關에 從事하는거와가튼

特志 家여러분이 文化事業이라는것을 참으로理解함으로써 무엇보다도먼저劇場하나를經營함이업시는 到底히 新劇의樹立을期할수업슬것이외다。俳優演技의 質的修練問題 劇文學의 發達向上等은 모다 우리가 조고마한 劇場이라도하나쯤 가지고나서라야 解決될것으로본는것이 當然할줄입니다。그것은한두個人의 偉大的熱誠에 맛겨도조커니와 文化에關心하는 全民衆의 다가티맛기지 아니하는努力으로써 所望을 達할可能性도充分히잇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것이 다른事

業 에 비처여 決코至難의事가 아닙은 勿論이오 찰아리文化事業의 意義를 한두가지에局限짓는 偏하려는傾向이 濃厚하게엿보이는것을 遺憾으로녀기는바입니다。우리가 너무도等閑視하야오든 이演劇은眞正한出版事業에對하야서와 마찬가지로가장 切實한問題이면서도 우리를그着手에 躊躇케함은 實情을모르는배아니나 저윽히 疑心에갑할마한합니다。우리에게는 우리의劇作家 우리의

演 技者 우리의演出家等等要求되는人物이적지아니합니다。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劇場도가지지못한다고하면 언제나槪念的演劇運動의 領域을脫出하지못한채 新劇樹立을 꿈꾸는데 지나지못할것이외다。

技術과劇作

李石薰

무엇보다도技術을獲得해야할것은 勿論 이와아울러조혼劇作의出現은絶對要素이다。이두가지問題의 解決은 新劇樹立의巨步의成功을 意味할것이다。

◇

實際的으로感見을적어보면ー

一、劇、研의贊助員組織運動을보다더廣汎한範圍에亘하야展開식힐것

一、公演을자주가지는同時、적어도舞臺에서라는사람은 平素不斷한技術의硏磨에힘쓸입

一、一種趣味的、好奇心으로舞臺에서는사람、미進步할可能性(素質)이업는사람들은 劇運動이라食後의 消化運動이아님을깨닷고滑稽로운 醜態를公開하는沒廉恥를淸算할입

一、劇作家들과 密接한關係를가지고 나아가創作을 請託하는方針을取하야 創作欲을刺戟식힐것

一、外國劇本을上演할때에는 좀더 조선말化에힘쓸것

一、朝鮮의新劇運動은 劇、研호올로 擁持하고잇는 現狀이나 나는 이에對立할만한新劇團體가여러개생기기를 바라는者이다。왜그러고하니 조혼意味의 이들의 對立競爭은新劇樹立에잇서 퍽効果的이아닐까하야、

妄言多謝

映畫俳優들의告白

★……어떠한映畫에어떠한配役에……★

★……朴齊行

우리의뜻 우리의손으로 맨든러진 作品이라면 어떤것이고 반갑겟습니다 朝鮮의情調가흠으고 우리의心魂이 담겨잇는作品이라면……時代劇이고 現代劇이고또는엇더한階級의엇더한 입음取材햇든지 그時代相을 眞實히만表現한 作品이라면 매우 조타고생각한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廣範圍에 希望이요 特別히나個人을 보고 出演하고 십흔데를 몰으신다면 아마 朝鮮農村劇일까합니다 即 우리의農村에서 이러나는 事實 農村情景을背景으로한 農民情緖를살닌 作品이면 조켓습니다 그러나여괴에도海外作品을 模倣한흔적이흘내가는 그러한作品에는 도모지 誠意가 나지를 안허 出演하고 십지안습니다

★……徐月影

映畫라면 다ー映畫라고말할수업슬것이니 어떠한 作意로 構成된 原作이든지 먼저 그作者의作意가 明確하고 따라서 監督의表現技巧가 纖細해서 俳優들로하야곰 마음의演技를일으킬만한一全體를通하야 映畫다운映畫가構成될수잇는 映畫에 出演해보고십습니다 作意가 漠然한原作이라든지 또는表現技巧가 거칠고 散漫된監督의 作品에는거기에 重要한 責任을가진 俳優들로서는아모리 애를써도 힘으로 鑑賞하는사람에게 끼처주는힘이나지못하는것입니다 이러케생각하고보니 俳優藝術도 果然헤아릴수업는 神秘의境이잇슴을터욱 늣기게됩니다

★……沈影

내性格과氣分에맛는作品 例하면外國映畫의最近의것으로『商船테나시티』라든가『未完成交響樂』과가튼作品

高賦을치며주먹을드는 그러한씩씩하고 피가끄러올르는것도조코러니와 그보다도波瀾치는바다ㅅ가에서 고요히人生을생각하고십습니다 萬若에내性格을잡힐아주는作者나 監督이잇서 나를위하야 이러한作品을만들어준다면나는나의性格을發揮하야 作者의原意를傳達해주며 적은한것이라도大衆에게밧치는바이겟습니다 그리고朝鮮에도 빨리토ー키의製作이되엿스면 좀더만흔才操나發揮해볼가생각됩니다

★……金寅圭

어떤사람에 生活과 境遇를自己의心理的 動作으로 描寫해서大衆에게 批判을밧는데 映畫出演者의 理想이거기에 잇지아니한가생각한다 그러나社會的으로 存在부터 孤立獨步된 沈滯狀態의現朝鮮映畫界는 가난사리에쪼들리느라고 演技者로서의 適合한出演機會를 못주어왓다 그러고보니 自己와 映畫와關係亦是 퍽認識이 稀弱하다 實際力行을 거듭해야 自己가가지고잇는 天質을發揮할수잇스나 그要望하는 有機的機會가 드문까닭으로 어떤映畫에 出演하고십다는것을漠然하나마도 指摘하기가 퍽難하다 要컨대 常備興行할수잇는 舞臺를어더 充實히 硏磨한 演技者로서의 氣品도잇고 映畫의 選擇업는 表現의成果를 어들것이다。

★……林雲鶴

우리는 外國映畫를輸入하는것 뿐으로 滿足지안흘것이다 우리들의 映畫를外國으로 世界市場으로 輸出할수잇도록은 우리들의 情狀과 國民性을 單純히外交的手段이 안인것으로 世界에알리고십흔것이다 社會大衆敎化에 重大한關係를 가지고잇는映畫!! 이점에도불고하고 現下朝鮮의映畫 그것은엇떠한步調와 地位에잇다는것을몰때에 아무것도아지못하는 나의가슴에 그저아지못하리만지 갑갑할뿐이다。

映畫藝術이 오날에업마나當面重大한것이라는『편大衆이더잘周知하는바일것이다

내가出演하고자하는、映畫는첫재로 나의性格에맛는映畫!!現下映畫藝術이가저야할 重大性그것을 如實히把握한映畫일것이다그러면 只今要求하는 役割을뜻대로 어데를때가잇슬는지 그저漠然할뿐이다

俳優들의告白(續)

★……金蓮實

나에게命題된 質問이라 하올는지 感想이라하올는지『어떠한映畫에 出演하고 십흔냐는것에對하야 對答치못하겟다는것보다도 眞正한映畫演技者 卽 俳優로서는 論함에該當치못하온것이며 따라當然히 成立되지못할論題라 생각합니다。차라리 나로서는『어떠한映畫에 出演하고십흐냐』에對하야 구태여말하오라면 어떠한映畫 一個의作品을製作하고자할 그映畫의어떠한人物로 配役當하던지 男女老幼如何한人物이라도 그演技에잇서서 不可能이업시 完全히優越한演技를 나타내이겟다는것이 映畫演技者로써 나의오즉最高理想이며 언제나 志願하는바라하겟스며 오로지 斯道를圖하는날까지는 이것을目標로하고、꾸준히演技技術을鍊磨하야 나갈뿐이겟습니다。

★……朴淵

優秀한演技를보히기前에 어떠한映畫에 出演하고십다고 말한다면 조금 우수운일이다 出演할機會를 만히가저보지못한나요아프로 그런機會가 만흘지도모르는 나로서『이런것을 해보고십소』하기가 어려웁지만 獨逸의 콘나트、파이드、가튼 役이조타 아프로나는 俳優로서 特色이잇서보라고 努力을끈치지 안켓다

★……咸春霞

今後朝鮮映畫도 事業에對하야理解를가지고 同映畫藝術運動의價値를 徹底히 認識한 사람으로서 相當한 資金을 支出하야 우리들의손으로完全한 組織體인 映畫會社라도하나設立되기전에는 아즉은 또다시 出演할생각까지는 안가지고잇습니다 萬一나의要求하는 適當한 機會가잇서再次映畫界에 投身하게된다면 朝鮮에서 一般大衆에게 確乎한權威를가지고잇는作家의 原作으로써 現下朝鮮社會의 現實을如實히描寫한 社會劇의主人公으로서 指導者格으로活躍하는 靑年役이나 그렇치안흐면 日前에市內某映畫館에서 封切된『未完成交響樂』갓흔純文藝映畫의 靑年役갓흔것으로 出演하고십흡니다

藝術映畫製作과 興行本位映畫의將來(下)

人間生活의斷面을描寫하면그만

安鍾和

그러나 映畫의本意를 알고잇는興行業者이면 藝術映畫이라하여도 그다 놀나지안흘것이다 첫재 映畫가 表現하려는것은 무어인가?

人 類들의 살어가고잇는 部落을 그社會를 그集團을 作格的으로 表現하는것이다 다시쉬웁게 말하자면 人類社會의 生存하기爲한 움직임을 人生生活의斷面을 우리들의 生活事實를 이것은단치 내가 藝術的理論을 쓰는것갓하서 再規식히는것이다

길게 느려노코 십지안코나 何如튼 映畫란 極히 짧은時間에 우리들의生活一面을 限度잇는尺數에다 다시 劇的으로 料理하여보는것이다。

함으로 藝術映畫라 할것가든면 그야種類에따라 말할수도잇겟지만 普通映畫館에서 오락本位로 對하게되는 映畫觀이라면 덜허놋코 게업하는니보다도 먼저 그 作品이 藝術映畫로서의

內 容과表現이 興業市場에서 라제되지안흘것인가를 본 연후에라야 가부를 말할수잇슬것이다。

다시말하면 아무리 文藝的이나 藝術的이나하드라도 그低級한表現으로만 技術的缺陷이업시 되作品이라면 興行上收入은 스사로기틀것이겟고 興行人들로서도 비로소 社映畫를 對함과가티 환호喝采하게될것이다。

함으로 今後 朝鮮映畫에잇서선 技術的으로 映畫다운 面目을가진 藝術映畫이면 壽命上收入이 多大할것이다。

萬若低級한 興行本位에만 精神이 빠저서 不自然한 事實을 그나마도 不足한 技術로 幼稚한表現을한 作品이라면 壽命이 짤붓것이라고 잇는다。

그러함으로 今後 朝鮮映畫는

技 術本位로 映畫의 面目을 구비한作品다운 映畫를製作하엿스면 興行上利潤도잇슬것이겟고 따러서 朝鮮映畫의 正當한發展과向上을 꾀할수잇슬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잇서서 興行價잇는藝術映畫製作을 力說하는同時 짤막한 愚言이나마 집서업시 社한厚顔을 깁히謝한다

藝術映畫와興行本位映畫의將來

大衆을리ー드하는 藝術映畫時代가오라

東和商事 高仁文

所謂 藝術映畫와 興行本位의 映畫는 決코兩極端으로對立되는것은 아닌줄생각합니다 良心잇는製作者이면 누구나藝術的價値놉흔作品을 맨들여고할것입니다 그러나單只問題되는것은藝術的表現方法如何에잇습니다 比較하여말슴하면 文藝에對하여서도 口語體의傑作도잇고 文語體의傑作도잇슬것입니다 엇던文體를勿論하고 훌륭한것이면 이것을볼만한敎養잇는讀者가

必要 한것입니다 그러나 알기쉬운 口語體로써 맨든것이면더한層커ー다란價値를가질것은 말할것도업습니다

映畫에잇서서도 藝術的으로훌륭한것이면興行的으로도 不安은업다고 斷言할수잇습니다

實例를들어말슴하면紅髮(一名にんじん)未完成交響樂가튼 映畫는藝術的으로나 興行的으로나 成功한映畫라할수잇습니다 이두가지映畫엇더한것이나 우리들은

雜解 印어려운表現을불수업섯고 더욱藝術的香氣를滿喫할수잇섯든것입니다

製作者가 以上의條理를잘알면서도 卑近한作品의製作을繼續치아니하면안되겟는냐고하면 그大半의責任은一般大衆에게잇다고生覺됩니다 營利會社인以上 觀客이조와하는映畫를 提供하려고하는것은當然한일이겟습니다 一般大衆이 훌륭한映畫만을보고 愚作映畫를아니보다고하면映畫는 반다시向上되고말것입니다그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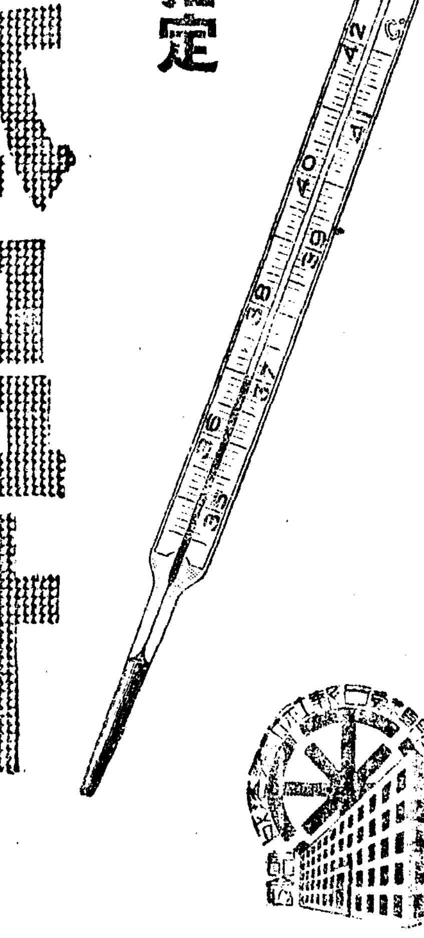
常道 라고하겟습니다 그러나現在보는바로서는 映畫는아직도 少數의사람들에게 滿足이될뿐이고 普遍的으로 一般大衆을『리ー드』할程度까지 이르지못하엿다고 生覺됩니다

要컨대 一般觀衆의映畫鑑賞眼이 좀더向上되면 藝術映畫가卽興行本位映畫가될것이라고 밋습니다 무엇보다도 一般大衆의努力과向上이잇다면 藝術映畫이니 興行本位映畫이니하는 稱呼가合當될것이라고밋습니다(完)

仁丹型體溫計

商工省選定優良國產品

京城醫科大學病院 昭五會指定



國內生產總數의 五割를占하야

英、米、獨、佛、伊等의强大國을비롯하야

實로 四十六個國에輸出

이것 참으로 業界의劃期的大記錄

一家에一本은 絶對로必要한 健康의顧問

英國品에優越한光輝잇는國產體溫計

仁丹型體溫計 價格表

仁丹의平型	五號	一圓四十錢
仁丹의平型	六號	一圓九十五錢
仁丹의平型	七號	一圓四十錢
棒狀半分計	十二號	一圓七十五錢
棒狀一分計	十三號	一圓五十五錢

常備藥仁丹과仁丹齒磨本舖 大阪市 森下博營業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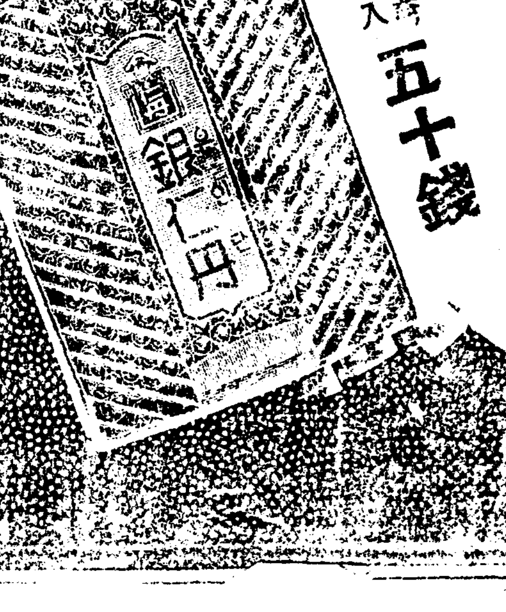
仁丹

仁丹의活用

惡疫流行時　船車旅行時　口中惡臭時　社交觀劇時　音聲을쓸時　食前食後

疲勞倦怠時　氣鬱不快時　訪問接客時　執務工夫時　運動散步時　飮酒喫煙時

菌을消毒하고 胃腸을健全하고 口[illegible]를 除去함으로 惡疾流行의 此際 隨時隨處에 全家族이 當用하심이가장 安全策!



○當用에는 가장편리한 瓶入(容器共 九百粒入) 五十錢

黃海道의大關門 龍塘浦港大擴張

總工事費百五十萬圓으로 明年度에起工實現?

【海州】 상업항구로서 황해도의 관문인 해주룡당포항(龍塘浦港)은 공비오십만원을드려 준공한후 룡당포항 첫해인 소화칠년도의 무역액을 보면 불과 삼백구십만원이든것이 소화구년도의 무역액은 준공당년의 약 사배에 가까운 일천삼백사십만원이란 놀나운 비약적약진을 뵈이고잇는터로 딸방에서 집중되는 화물을 소화치못하야 해운업자는 물론 관계 당국에서도 적간 축항확장운동(築港擴張運動)을 계속해오든바 황해도당국에서도 이의 실정에 감하야 총독부당국을 움직이어 작년 항만조사반(港灣調査班)의 파견을 구하야 확장을 전제로한 룡당포항내의 측량을 단행하엿든데 소화십일년도에는 룡당포항 확장공사를 착수키로 성안을 어더 방금 그준비공작에 매진하는 중이라한다 그런데 룡당포확장안으로 최초에 전하든 현재의 안벽(岸壁)에서 룡당방파성(堤)까지의 연장안이든 공비삼백만원을요하는 제일안이 아니고 현재의 안벽의좌단(左端)에서 방조제(防潮堤)의 동북방까지를 매립하라는 공비일백오십만원으로 개정된 제이안이라는바 이안이 실현되어도 현재의 삼배가량의 신안벽(新岸壁)이 획득될것으로서 이것이 완성되는 날에는 대약진의 거항 현재축항의 협착은 완화되리라하야 일반 백육십만도민은 그공사의 실현을 갈망하고잇다한다

警察部長 洪[illegible] 衛生課長 金[illegible] 社會部長 河[illegible] 學務部長 金[illegible] 經濟部長 金[illegible] 調査部長 [illegible] 庶務部[illegible]

釜山記者團主催 洛江船遊會延期

【釜山】 부산기자단주최의 락동강선유회(洛東江船遊會)는 오는 [illegible] 여러가지로 준비중이엇든바 당분간부득이사정으로말미아마 일자를 연기키로되엇는데 그다시 시일을발표하리라한다 그리므로이미신청한회원제씨는 미안하나마 다시시일을발표할때까지 기다려주기를바란다고한다

扶餘郡一帶에는 苗板까지龜裂

各處에서祈雨祭騷動

【扶餘】 부여지방은근년에드문한발이계속되여 이앙률과반도못되엇스며 근일에는 모판까지귀렬하는현상으로 작년녀름에미증유의수해로생활이 극도로궁핍한 일반동민의 불안초조는극도에달하엿스며 지난이일밤에는 부여뒷산에서대대적으로 기우제를거행하는등 대소동중이라한다

公州의二大懸案 促進運動具體化

自動車線路와錦江修築等 陳情委員三氏上京

【公州】 공주와조치원간자동차선로에대하야 철도국직영으로 해달나는것과 공주금강연안의 수축공사를해달라는 두가지조건을 확대하고 진정차로 공주시민최고간부 삼강연보(杉岡延輔) 지헌정(池憲正) 대서행길(大西幸吉)삼씨가 지난사일에 상경하야 철도당국과 내무당국에 진정하얏다한다

公州永明普校 臨時總會經過

【公州】 공주영명보통학교(永明普通學校)는 선교회에서 경영하여오든 『미슌스쿨』로서 교사와 설비는 가장충실하나 선교회의 보조금으로 이래경비를써오든것이 그보조금이 년년감소되여 드디여 경영난에빠젓든데 이학교를 경영난에서 구하고저조직된 동교후원회에서는 지난오일에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규약의신제정과 동교발전대책에대하야 각항으로 협의햇는데 동회의앞으로의 활동여하에따라서 동교경영에 대한 신기축이세워지기를 일반은크게기대하야마지아니한다고한다

數日內不雨면 代播外에無道

【安東】 경북의성군안계면일대에는 지난이십일경에 약간의비가잇슨후 련일오늘한저고방만보힘뿐이며 한발은의연계속하여이앙성적은상상함에 불과하다는데만일 이앙은 느저가이엇서 수일내호우가업스면 대파외에는방책이업다는바 일반의동정은갈사록소연하다고한다

高麗時報社 創立總會經過

【開城】 지난 륙월사일 오후사시경에 주식회사고려시보사 창립총회를 개성부내 북본정고려시보사 창립사무소에서 주주 이십여명의 출석으로 개회되여 다음과가튼사항을 결의하고 취체역 감사역과 각부문책임자선정이잇슨후 동일오후칠시경에 폐회하고 이어 부내천일관(天一館)에서 자축피로연이 잇섯는바 결의사항급 선임된자의 씨명은 다음과갓다

(決議事項省略)

社長 金正浩 副社長 孔鎭恒 常務取締役 金秉河 取締役 朴尙裕 秦泰燮 監査役 李允秀 金鎭炳 河奎杭 主筆 李瑄根

能仁學院六年級 突然閉鎖를嚴命

上級校入學準備生收容햇다고 咸南道學務課의處事

【咸興】 함흥능인학원(能仁學院)은 약삼십여년전에 개원한이래 함흥빈한아동과 무산아동들만수용하여 졸업생수가 무려사백여명이되며 현재륙학년까지 재적생만이 백여명의 다수에달하는현상으로 그공적이 실로큰바 잇엇는데 수일전 함남도학무과에서는돌연 동학원 륙학년을 폐쇄하라는엄명이 도달되여 륙십여명의 아동이 배울길을일코 방황하게되는비참한 경우에빠저버렷다 이제그폐쇄령을 내린리유를 들어보면 동학원륙학년은 보통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상급학교에 진학할 준비를하는 아동이 다수하다는것이며 만일 이를허락하면 륙십여명을내여보내지 안으면 동학원전부를 폐쇄하겟다고엄명하엿다는데 일반은 그처사에 비난이적지안타한다

船舶職員講習會

【元山】 함남수산회(咸南水産會)주최 선박직원강습회(船舶職員講習會)는 금월일일로부터 삼주일간 원산수산회에서 개최한다는데 벌서 이일현재 신입자가 칠십오명의다수에 달하엿다는바 수강자는 확실오전구시까지 전기회장에 참집하기를 바란다고한다

高麗時報社 創立總會經過

鳴尾村도大浸水 百餘同胞가困境

方今有志가救援中

【兵庫】 병고현무고군 명미촌은(兵庫縣武庫郡鳴尾村)작년풍수재로인하야 가옥을유실한이십여호의재주동포들은 겨우해안봉지에빠락을지여 궁핍한생활을근근유지하여오든중 금년호우에또다시 빠락조차침수되야 갈바를모르고 방천에서 방황하게되든참상이라는데 동촌에거주하는리용숙(李用淑) 변상준(卞相準) 림명출(林命出) 안창언(安昌彦)제씨의동정으로 우선백여명의 리재동포를사씨의집에다분숙시키고 감수되기만기다리고잇스나 련일나리는비는긋치지아니하므로 압흐로들의구제할도리가막연하다고한다

獵奇的怪死事件 推定犯人을送局

檢事局處斷이注目

【咸興】 지난륙월칠일밤 함흥부서정(西町)문석정(文錫鼎)방에 동연모련의 인처가부에서 선혈을흘리면서 사람살리라는비명과 함께 쓰러젓다구 수십분후에절명한이유의 엽긔적사건은 발생이래 이십여일동안 경찰서의필사적수사도 효과업시 일반의흥미만더욱고조되고 잇든바 드듸여 미행첩보로, 정부인한조(韓趙)某는 추정범인으로 상업일건서류와함께 함흥검사국에 송치하엿는데 금후검사국에서 과연어떠케처단하게될는지、 며지홍은그냥무죄로서방면될는지 어려그적사건은어떠케진전될는지 일반의흥미의초점이되여잇다한다

酒造法違反者 兩郡八十四名

擧皆가貧農階級

【平澤】 보리타작과 모심기에분망하고 피곤한농민들은 세상사람이다조하는술을 이상심천이란돈도없어서 한잔먹지못하고 보리술이나마맨드러 피곤하고주린창자를달려보라고 한되두되의술

安岳支局主催의 玄濟明獨唱大會

鄭、朴兩氏의助演으로 安岳初有의大盛況

【安岳】 지난이일밤을 기하여본사 안악지국주최로 우리악단의총아 『테너』현제명(玄濟明)씨와 피아노의명수박경호(朴慶浩)량씨를초빙하여 현제명독창회를 한다함은 긔보한바이어니와 당일은정각전부터 운집한관중수에서 후로 그람을 진해하는중 현、박량씨의래안(來安)을경하는의미에서 대성악단이나반도악단의가수뿐라노 정훈모(鄭勳謨)녀사의조연은더한층새로운 이채를늬이여그야말로 문자그대로대성황이엿스며 입추의여지가업시 대만원을이룬운 수천중의환호성으로막을마암아일대센세이숀을 이르키고동심사반에 폐회하얏다

地方人事

▲金正浩氏(株式會社高麗時報社社長) 新任人事次 本報開城支局來訪

▲孔鎭恒氏(株式會社高麗時報社副社長) 同上

▲金秉河氏(株式會社高麗時報社常務取締役) 同上

그女子의一生 【149】

春園 作 夕影 畵

「언니」

하고 은봉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마마·금봉을·불렀다。

「왜? 너 어제 놋지니?」

하고·금봉이가 문을 연다。

은봉은 방안에 아모도 업는것을 보고 안심한드시 뛰어들어 오면서

「오빠가 사흘전 어대를 나가고 소식이 업대。 그래 집에선 야단낫서」

하고 눈이 동그래진다。

「옵바가? 사흘전에?」

하고 금봉도 놀랏다。

사흘전이라면 인현이가 금봉의 처신을 재촉하기위하야 왓든 날이다。 그날 인현은

「만일 네가 이생활을 계속한다면 나는 어대로가서 업서저 버리고 말란다」

하고 대단히 흥분해서 가버렷다。 인현은 금봉이더러 검팡진 심상래는 물론이오 최욱남이든 여자까지와도 교제를 끈코 이 살림을 거더치우고 마일 수녀가 여승이 되기 실커든 어듸 먼 시골 가서 숨어 살라는것이엇다。 인현은 분명히 검팡진이나 심상태에게 대한 위협을 느꼇다。 또 ·긔미년 만세운동이 지나고· 사회주의사상이 만연되면서부터 청년남녀의 마음이모도 들떠서 마치 성욕과 향락의 난무시대를 현출한 이때에 금봉이가 그 난무극에 중요한 광대가 되것을 인현은 직감하엿더것이엇다。

금봉은 비록 인현의 우에지정과 또 그의 인생관에 경의를 표하지아니함은 아니지마는 이 조흔 청춘을두고 절구석이나 시골구석으로 들어가 숨는것은 죽기보다 더괴로운일이엇다。 그래서

「글세, 옵바」

하기만 하고 인현의 말에「네」하는 시원한 대답을 할 수가 업섯다。

「옵바가 나 때문에 집을 떠나섯구나!」

하고 금봉은 눈물을 흘렷다。

「왜? 왜 옵바가 언니 때문에 집을 떠낫수?」

하고 은봉이가 이상한듯 눈을

「넌 모르는 일야?」

하고 금봉은 은봉을 핀잔을주엇다。

「나도 다알어」

하고 은봉은 생색해서 건넌방으로 가버렷다。 은봉도 현과 김팡진과 자조 만나는것을 이상하게 여길 나이가 되엇다。

「그래도 할수업지。 옵바맛다나 옵바는 옵바 운명대로 가고 나는 내 운명대로 갈수밧게」

하고 금봉은 혼자 단념하라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은봉아, 은봉아」

하고 건넌방으로 가버린 은봉을 불럿다。

「왜?」

하고 은봉의 대답은 목멍스러웟다。 형의 근엄에 하는 방종한 생활이 못 마땅한 까닭이엇다。

「이리 와, 누가 무에래길래 저것이 골이 낫서?」

「왜?」

하고 은봉이가 안방으로 건너왓다。

「저어, 옵바가 말이야, 옵바를 차자보아야 아니 하니?」

「옵바가 어듸 간줄 알고 내가 찻수」

「저어, 송월동——왜 옵바 친구 안 잇니 저 황괴현이라든가 하는 그 사람말야。 너도 보앗지?」

은봉은 말업시 고개만 끄덕거린다。 황괴현이란 한번만 보아도 여자의 긔억에 남을 사람이엇다。

「옵바가 요새 송월동 황씨집에를 놀러다니는 모양인데, 너 그 집에 좀 다녀오렴。 옵바가 거긔 안갓다나? 그집에서는알뜻십흐니」

「내가 · 알지도못하는 집에 어떠케 가우?」

「저 순이 다리고갓다오너라。 순아 어린에 친모더러 좀보라고하고 너는 이아가씨 좀모시고갓다온。」

「그집이 어듸?」

하고 은봉이가 일어서며 뭇는다。

「송월동이래。 송월동 알지。 새문밧 성미는로 돌아가서, 말야。 거기가서 황부령집이라면 다안다더라。 그중 큰 집이래。」

은봉은 갈지 한 시간도 못하야서 돌아와서, 금봉더러,

「갓더니 그집에서도 서방님이 사흘전에 어듸로 나가고 안들어온다고, 애오개 리서방허구 그 숭굴서럼은 큰은 중녀석이 후려내에서 어듸로 빼돌렷다구, 황부령인가 한 영감이 사랑에서 뛰어들어오더니 그 큰은 중놈을 못들어오라고 사람을 사방으로 보내구, 야단이던데。 경찰서에 수사청원을 한다구。 그러니깐 그 동동보 마나님이 아스라구 경찰서에는 말을 말라구。 그래서 야단만 만나구 왓손」。

하엿다。

祝朝鮮日報社新築落成記念

仁川三面繼續

仁川府外里二四〇番地 安基榮

仁川府港町一丁目五番地 森信汽船株式會社 電話一六三番

永宗通仁組合

朝鮮仁川萬石町三七 東洋紡績株式會社 仁川工場

仁川米穀商組合

仁川府新町 朴南七

仁川鹽共同販賣組合

仁川外里 綢緞、布木 豐國商會 吳[illegible]正

仁川府內里 海陸物產委託貿易商 相仁商會 主 金仁鎬 長電話八七〇番

仁川府內里 朴在中

京畿道立仁川醫院

仁川府金谷里 金銀商 齒科材料 仁信商會

仁川府海岸町二丁目十番地 穀肥商 崔大永商店 電話長一一七六番

仁川府海岸町二丁目四 米雜穀飼料 貿易商 泰和商會 電話八一〇

仁川府仲町三丁目一番地 丸中商會 電話六九四番

仁川府外里一六四 大一釀造場

仁川永化女子普通學校 職員一同

仁川府外里一八九番地 各種고무 무靴商 中央고무商會 主 林[illegible]

專賣局出張所 鹽販賣 鷄源二月

仁川府仲町三丁目三〇三 金相琦

仁川府花平町二丁目四七番地 仁川府水產物賣市場 仲買組合 水產物委託販賣 鄭興澤商店 電話一一〇番

仁川府外里七七 綢緞布木商 富來商會 主 李[illegible]

仁川府內里 李會一

仁川府外里 中和堂藥房 主 洪思文

富川郡守 許燮

仁川府栗木里 金秉濟

仁川新花水里 順昌精米所 所長 李正化

仁川府外里三三三番地 濟生醫院 院主 金有根

仁川博文普通學校 職員一同

仁川府萬石町 仁川硝子工場 主 金鳳祚

仁川府海岸町 仁川雜穀商組合

仁川府華商商會

仁川府山根町一九 清酒釀造 醬油釀造 合資會社 大和釀造場 代表社員 丁大賢 電話一一二三番

仁川永化普通學校 職員一同

仁川宮町 醫學博士 西野入眞澄 電話一一一六番

仁川稅關長 吉岡三浦

仁川府外里一三〇番地 綢緞布木商 奉春商會 主 郭泰春

仁川府外里一二三番地 安斗濩齒科醫院 京城齒科醫學士 安斗濩

仁川府內里二〇五番地 米穀貿易 委托賣買 光興商會 電話一一一九番 振替京城一五八二〇番

仁川穀物協會

仁川府海岸町三 新華商會 金元國 電話長三〇六、一五八番

仁川府仲町一丁目二番地 海物 繩叺商 金相浩 電話五三〇番

仁川府花房町 ㊉廣信運輸組 海產物委托運送業 金熺源 長電話八七六番

北海道海產物直輸入元 仁川府內里 內外靑果 海陸物產 委託問屋 丸三商會 主 曺祥吉 電話九一五番

仁川府海岸町三丁目三番地 米雜穀 肥料 外米 委托 貿易商 殖產商會 電話七三七番 振替京城四〇八五番

仁川府牛角里一三 三珍釀造場

仁川內里 金銀商 天恩社

仁川府海岸町三丁目三番地 米穀仲立業 友米社 洪元杓 電話長一七二番

株式會社朝鮮日報社 仁川支局 支局長 崔晋夏 記者 孫啓彥 記者 柳昌浩

綾州

全南綾州北門通 朱基俊

全南綾州本町 權泰性

全南綾州本町 宮崎悟一

全南綾州本町 友淸幸輔

全南和順郡春陽面佳樂里 李鍾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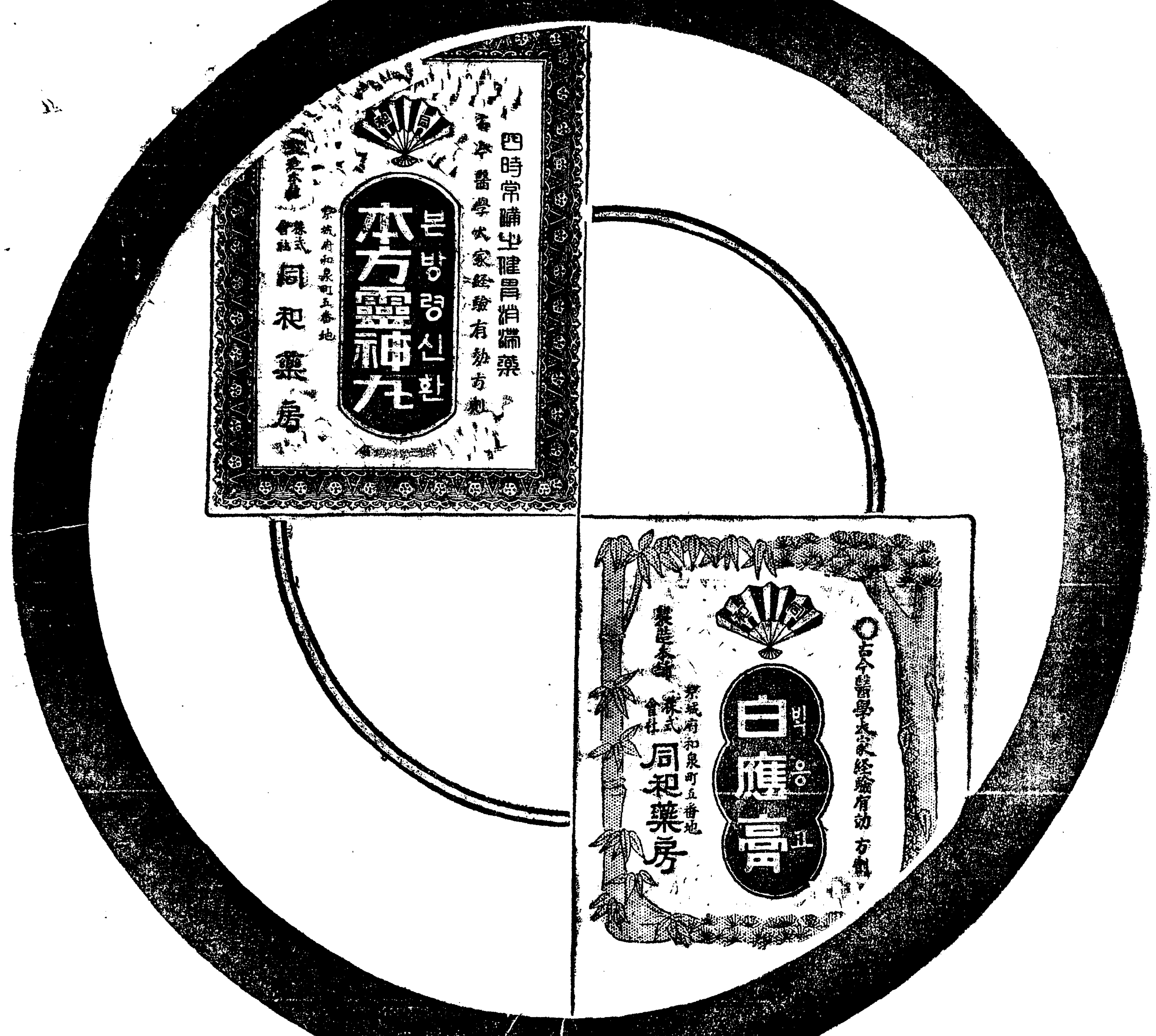
全南綾州本町 廣林東

全南綾州本町 本田精米所

綾州北門通 朱在爽

全南綾州北門通 淺原利男

全南綾州邑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綾州支局



家庭常備救急胃腸藥

活命水

활명수

무더운 녀름철은 도라왓습니다。胃加答兒、腹痛、泄瀉、吐瀉곽란、中暑窒息、氣滯胸鬱、食慾不進、이런病에걸니기쉬웁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勿論貴여운 어리니들와萬一을爲하여 和平하신 家庭에 꼭一瓶常備하여두십시오。

京城府和泉町五番地

製造本舖 株式會社 同和藥房

振替口座京城三二八番

電話光化門二七一[illegible]番

下半期財界觀測
◇……金融大勢無異變

×

近年金融緩慢의 最大原因인 東京內의 銀行預金이 今年에 入한 三月까지 每月減少하얏고 一面貸金은 逆으로 增加하야 三月末에는 『金』市場의 異狀한 强調를 示하얏슴으로 一部에서는 金融逼迫의 逆轉까지 思하기에 至하얏섯는바 이 預金減少의 原因은 主로 明年末以來 國庫資金의 民間에의 撒布가 遲延된데 歸한것이며 또 貸出의 一時的增加와 『金』市場의 强調는 銀行이 明年末로부터 今年初에 亘하야 國債及米穀證券에 放資하야 過剩金의 消化에 努力한뒤에 北鐵讓受的償金二千三百萬圓과 東京市의 玉川水道買收資金千八百萬圓等이 잇섯고 또 막大한 納稅資金의 移動도 잇서서 急히 『金』을 回收하기에 至한 結果이엇다

그러다가 同月末에 九年度新規國債三億三千萬圓 五月十年度大藏省證券五千萬圓等이 發行되어 政府支拂이 續行되자 預金은 再增加趨勢이엇고 貸出金은 減少傾向이엇스며 從前大勢에 恢復되엇섯다

×

上記와 如한 推移를 下期의 金融情勢가 如何하냐하면 十年度國債發行豫定額 八億七千二百萬圓中 豫算財源으로서 現金이 必要한 八億五千萬圓은 그中幾許가 年內發行될지 未知이나 昨年度는 七月二億圓 十一月에 三億圓을 發行하얏스니 今年도 同樣程度의 發行을 잇다 보아 五億圓에 達할 大額資金이 民間에 撒布케될것이오 이것이 銀行에 還流케되겟는바 近年旣存生産事業設備가 相當擴張되엇고 또 新興産業의 生産設備도 顯著히 多面的이되어 資金分散浮動이 相當增加한때문에 從來와가티는 안되드래도 依然預金增加趨勢의 經路를 取할것에는 變함이 업슬것이며 또 모든點으로 보아 新資金의 顯著한 需要는 不起할것이다

×

다음에 貿易關係에 就하야 보면 今年上期末現在 一億九千四百萬圓의 輸入超過로 前年에 比하야 約一千四百萬圓의 入超增加와 最近 輸出貿易이 停頓의 傾向을 呈하얏다하야 相當히 悲觀說이 잇는 모양이나 入超가 만엇든 昨年上期는 主로 印棉不買同盟에 依한 輸入減入하는 特殊事情이 잇는때문이오 또 輸出貿易은 物에 依하야서는 幾分出超의 感이 업지는 안으나 日本品의 進出力은 依然旺盛하니 大勢에는 變化가 업슬것이오 찰아리 下期는 前年期에 比하야 도리어 四、五千萬圓의 出超增進을 豫想할수잇는 狀態이다 貿易外勘定으로서 銀의 輸出이 値上影響으로 相當多額에 達할 豫想인즉 結局貿易關係는 金融市場의 緩和材料로 보아 無關係할것이다 要컨대 下期中에는 北滿鐵道關係의 支拂資金 二千二百萬圓과 滿鐵의 年內所要資金約九千萬圓等相當大額의 需要가 豫想되고 또 年末關係의 資金需要도 잇스나 大勢上遂과가튼으로 大勢는 依然金融緩慢金利低의 現狀을 繼續할것으로 豫想된다

×

銀行은 收益減인 此際임으로 過剩資金은 債券消化에 努力할것으로 株式社債受渡의 더가 特殊大額資金移動時는 一時短期市場의 緊張을 볼과 如한일이 잇겟스나 東西兩市場에 放資되는 外貨證券을 中心으로 하야 回收하야 調節할수가잇다고도 할것은 今後도 大體四億圓內外 米穀證券과 大藏省證券의 現在高가 五億六千八百萬圓에 達하나 七月以降 每月下旬期限이 到來함으로 銀行은 逐次買入證券의 償還을 受하야 市場資金의 需要에 應할수잇슬것이다

會社組織의 米穀業과 生産取扱業의 現況
販賣斡旋百十四社、資本約七百萬圓 生産取扱五十社、資本二千七百萬圓
◇……各道別會社內容

朝鮮內에서 穀物販賣斡旋을 本業으로하는 會社及이에 類한 類似會社의 數及資本金은 穀物의 販賣斡旋을 本業으로하는 者가 百十四社資本金總額 六百九十七萬四千五百八十八圓인데 그內譯은

	社數	資本金
株式	一八社	五一四萬圓
合資	七三	一一一
合名	二三	三二

이에 準한 類似會社는 總數五十社資本金總額二千七百七十一萬六千圓으로 그內譯은

株式	二七	二、五八六
合資	一六	五七
合名	七	一二七

인데 그것을 道別로보면 左와 如하다

	株式 社	萬圓	合資 社	萬圓	合名 社	萬圓
京畿	四	一九〇	一五	一四	三	二
慶南	四	三四	一〇	三	六	一六
慶北	二	一四〇	九	八	一	〇、五
全南	二	七〇	九	六	—	—
全北	—	—	六	八	二	二
咸南	三	一六	七	二	—	—
咸北	—	—	一	一	—	—
江原	—	—	一	〇、六	—	—
忠南	二	三五	五	九	一	一
忠北	—	—	一	〇、三	—	—
黃海	—	—	五	四	一	二
平南	一	—	五	一七	一	一四
平北	(內譯不明)					

또 穀物의 生産取扱業社는 五十社 資本金總額二千七百七十萬圓으로 그內譯은

	社數	資本金
株式	二四	二五、八六萬圓
合資	一三	五七
合名	七	五七

인바 社數는 京畿二二▲全北七▲忠南四▲全南二▲慶南六▲平南二▲平北一이다

鮮航同盟에서 特別割戾發表
十月米出廻期에 盟外船만으로는 輸送不可能을 밋고서

【大阪電話聯合】朝鮮米積取運賃에 關한 朝鮮航同盟對殿賦側의 紛糾는 仁川穀物商會의 强硬한 態度로 容易하게 妥協이 되지못한데 朝鮮總督府에서도 調停을하려고 아랏슴으로 鮮航同盟會는 來十日부터 現行運賃率(普通七十一圓 同盟理事社五十六圓)에 對하야 當分間五圓의 特別拂戾를 할것을 五日發表하얏다 그것은 十月朝鮮米出廻期에는 船舶이 不足할것으로 盟外船만가지고는 輸送이 不可能할點으로보아 十月까지 實施될것으로 豫測되는데 이에 對하야 荷主及總督府가 如何한 態度를 取할가하는것이 자못注目된다 度에 牽制된 結果인데 各社에서 이번 値下한것은 發表안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엇다 그리고 朝郵當局은 依然히 値下를 否定하고 『對策考究中으로아직 何等의 情報가 업다』云云

西朝鮮의 積荷 同盟會側에서確保

盟外船의 活躍을 牽制하는때 朝郵의 金剛山丸은 八日安東發阪神에向하야 出帆할터인데 鎭南浦에서 一千噸其他로 一千五百噸計二千

同盟會仁川支部 大幅引下要望
朝郵를通해進言

鮮航同盟會 仁川支部會員은五日午後 朝郵本社에會合協議한結果 此際五圓의 小幅値下로는 行할보다 一擧에十圓乃至二十圓의 大幅値下를 斷行하야 盟外船의 徹底的掃滅을 期할 이라는 意味의 協議를하고 朝郵를通하야 總督府에 進言하얏다

仁川荷主結束 一部崩壞의兆

仁川穀物協會를 中心으로한 仁川荷主의 策動에依하야 朝鮮米運賃同盟은 去益紛糾의 道程에잇는데 有力精米所「角丸」(奧田精米所)은 北中國滿洲關係의 事情을 表面的理由로 하야 穀物協會를 脫退키에 至하얏스며 三井物產仁川出張所 共益社仁川出張所에서도 여러가지 事情으로 同協會를 脫退하지 안을가보이어 鮮航同盟會側의 裏工作이 相當히 深刻한 潛行的運動을하는것이 漸次判明되엇다

朝郵側은否定

鮮航同盟會에서는 旣報와 如히 現行運賃仁川阪神間五十六圓(契約者)으로부터 七月一日에 遡及하야 實施하기로되엇는데 現在配船하고잇는것은 朝郵、大阪商船、辰馬、尼崎의四社에 不過하며 이번値下는 仁川側荷主의態

綿製品輸出進展力 漸次로萎縮狀態
上期綿布輸出은好調이엇스나 全世界席捲은昔日夢

【東京電話聯合】今年上半期의綿布輸出數量은 十三億六千四百萬一千三百八十七碼 金額二億五千四百九十四萬一千八百四十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總數量은一億二千四十一萬一千三百八十碼 金額二千二百六十四萬四千九百十七圓이 各其增加하얏스나 關印輸入制限舊市場의 不振과新市場인 中南米亞弗利加近東의 諸市場狹隘로因하야 또爲替低와 低코스트의 好調로 全世界市場을席捲하든 日本綿製品의 輸出進展力도 漸次萎縮되야 今年中輸出總數量은 二億碼增加의二十七億八千萬碼 程度임으로 昨年과가티 五億碼의 躍進은바라기어려우리라고한다

金組聯合會 餘裕金減少
金組員需資旺盛으로

金融組合聯合會의餘裕金은 今年二月末 三千八百萬圓으로 最高記錄을示하야 前年의最高에比하야 一千百萬圓의增大인바 그後急速한減少로 六月現在가 一千二百八十萬圓으로 前年의最低인 十月의一千四十五萬圓에 갓가운減少를示하야 金組員의旺盛한需資를反映하고잇다 그리고 全朝鮮金組計算五月末現在를보아도 五月末貸出은 一億六千百七十六萬圓으로 前月에比하야 七百十六萬五千圓이 增加되엇는데 그原因은 農村振興運動에 伴하야 高利債의金組債借換、協同施設의設置其他生産資金의 消化等으로 볼수잇는데 今後의推移가 자못注目되는바이다

日銀市中銀行 首腦懇談內容

【電通東京電話】日本銀行深井、清水正副總裁就任에 伴하야 日銀首腦部와 市中有力銀行首腦部과의 第一回金融懇談會는 五日正午부터 日銀會議室에서 開催된바 于先深井總裁로부터 國際收支關係에 對하야 『北鐵買收及來年一月滿鐵英貨債六百萬磅의 償還等때문에 國際收支의 惡化가 念慮되엇스나 最近貿易關係도順調로 進捗되며 그것은 償還資金의 手當도 包含되어잇슴으로 憂慮할것은 업다』等의 報告가 잇섯스며 그다음 昭和七年日本 이인플레政策을 取하야온以來現在까지 金融의 大勢的課程에 對하야 清水副總裁로부터 『今後의 金融大勢도 目前에小波瀾은잇서도 結局은低金利緩漫的 課程을 示하야 推移될것이다』한後今後公債賣却方針에잇서 日銀으로서는 從來와가튼方針을 繼續하야 賣止又는 故意로 制限을加하는等의 政策은取하지안을作定이다云云

殖産債券發行

殖産銀行에서는 借替키爲하야如左히債券一千萬圓을發行키로決定하얏다

一、發行價額 一千萬圓
一、利率 四分三厘과
一、償還期限 三個年据置十二個年間에償還
一、發行期日 八月一日

朝鮮石油會社 拂込金使途
百萬圓은預金

朝鮮石油拂込金二百五十萬圓中五十萬圓을 朝鮮信託에 信託預金을하고 五十萬圓은 漢銀에 定期預金을하고 殘額百五十萬圓은 一部를 土地購入資金에 一部를同系朝鮮殖産에 融資하엿는데 預金金融資利率은 年五分一厘와 五分三厘의二種이라한다

紡績減錘法案提出
英國下院에서

【電通倫敦三日發】英國政府는 三日下院에 紡績減錘法案을 提出하얏다 右는 紡錘總數五千三百萬錘中一千萬錘를 强制的으로廢止식히는것으로 紡錘一錘에對하야 一片六分의一의代價金을交付하는것으로 同法案의推移에 關하야서는 反對派의氣勢가 猛烈하야서는 成立은 今秋까지延期를보게될지도모른다고한다

米國生絲消費 近年來不振
在荷高의激增으로 今後需給惡化憂慮

米國에잇서 六月의生絲消費高는 三萬三千七百二十八俵인데 一般의豫想과는달라 近來의不振을示한바 前月에比하야 四千六百三十三俵의激減이다 그리고月末在荷高는四萬二千二十八俵로前月에比하야五千二百五十六俵의 激增을示하야 日本內地의需要好轉과 正反對로 需給이惡化하얏는데 이제 그內容을보면 다음과갓다 (單位俵△印減)

	六月中	前年比	前月比
▲輸入			
日本絲	三六、〇〇二	七、七五五	一、四三三
歐洲絲	三六〇	二三五	△六五五
中國絲	五九二	△三三五	九
合計	三六、九六四	三六、九六四	一、四四八
▲消費			
日本絲	三三、一三三	九六五	△四、一九四
歐洲絲	三八六	△九	△四四六
中國絲	二一一	△三〇一	△三九三
合計	三三、七二八	六六九	四、六三三
▲在荷			
日本絲	三九、六六六	△二、六六四	四、六二二
歐洲絲	一、四〇六	△一、三三四	[illegible]
中國絲	一、〇六四	△二、七五二	三五六
合計	四二、〇二八	△三、六六〇	五、二五六

米日爲替少高

【經濟五日發聯合】今日의米日爲替는 前前日과比하면 賣二十九弗十三仙으로四仙高 買二十九弗十一仙으로四仙高

東京爲替(六日)

	賣	買
對米	二十九弗十六分一	二十九弗八分一
對英	一志二片六十四分七	一志二片六十四分九

大阪爲替(六日)

	賣	買
對米	二十九弗	二十九弗八分一
對英	一志二片三十二分三	一志二片三十二分五

今日財界(六日)

◆米 (單位石) 仁川期米 大阪期米 大阪正米 仁川正米(上) 京城正米 [illegible]
◆市中金融價 [illegible]
◆商品 大阪棉花 大阪人絹 大阪砂糖 東新 日產 鐘紡 [illegible]

洋灰工場이 續設되어 生産過剩이 懸念되고잇는터이지음 比較的無風狀態인 絹布로各企業者가 注目하고잇는데 實業家가 이 出願이 如何한 成績을 當할는지가 注目된다

製造煙草渡高

專賣局六月分製造煙草賣渡高는 合計三百二十七萬六千八百三十八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三萬三千八百五十四圓의 增加이다(單位圓)

▲京城 一、二五三、二八九 ▲全州 七四五、三四二 ▲大邱 六一〇、五九九 ▲平壤 六六七、七一五

經濟界消息

○漢城銀行總會日字＝漢銀에서는 五日重役會에서 來二十三日第六十期定時株主總會를 開催하고 左의件을附議하기로決定하엿다

一、第六十期營業報告書、貸借對照表、財産目錄及損益計算書承認의件
二、第六十期利益金分配案議決의件
三、取締役一名選任의件
四、當行存立期間을六十年으로延長의件
五、定款變更의件

定款第四條를左와如히改正한 本銀行의 存立期間은 設立日로부터 六十年으로함 但株主總會의決議에依하야 其期間을延長함을得함

이엇는데 過去三個年間無理에無理를 거듭하야 暴飮的으로 擴張하고 資本金을 二億圓으로膨脹한 大反動이 示現되는 途中으로밧게 볼수업스니 적어도五十萬錘 或은 意外의大縮落을招來하야 收拾할수업는 事態를惹起케되리라는 極度의 悲觀論이擡頭키에 至하얏다

明朗化는難望
下期整理續行?

市勢를 陽轉식히에는 積極、消極두가지方法이잇스니 新規로큰材料가 突發되어 市勢의形勢를 一變식히는것은 積極的方法이오 現狀以上의 悲觀材料가 完全히 大底를形成하여 더떠러질餘地가업시된後 底値百日을 待하는것은 消極方法인데 지금內外諸事情에 비취어 所謂積極方法은 바랄수업는 一方 消極方法이나 기대릴수밧게업는 處地인바 下期는비록 金融大勢가 基調에無變化라하나 一方 貿易關係에잇서서는 上期는 豫想을거듭 不振이아니엇다하나 輸出에잇서 下期不振을 미리알어채고 豫想振出이 相當하얏든것과 下期에는各國의 關稅障壁이 實行期에入하야 全面的으로 日本品防遏手段을取할것을 想到하면 下期貿易은決코樂觀할것이 아니며 內外政經方面으로서 不安이 依然繼續될것인 만큼 市勢의 好轉은 至難視되며 要는 徹底히 三個年繼續되인 인프레買의 大整理를完了한後에야 비로소 險惡한株式의好化를 期케되리라하야 昨今頹勢挽回로 無望視함은 一理가 잇다

主要株式利廻
七十月以來高率

【電通東京電話】日本勸業銀行調査

七月一日現在의 主要株式利廻는 五分九厘로 前月에比하야 一厘四毛의 昂騰을示한바 그主因은 株界의低迷에 基한市勢의下落이라한다 七年十月의六分二厘一毛(指數八六)를除外하면 最近의高記錄을示現하얏다 四月以降의 步調를示하면 左와如하다

	市勢	配當率	利廻
	圓	分	分
四月一日	八六、五五	八、一三	五、七〇
五月一日	八八、三三	八、一四	五、七六
六月一日	八六、〇一	八、二九	五、八四
七月一日	八六、八八	八、二四	五、八九

備考 利廻는各株式의利廻를平均한것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二百四十枚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電通東京電話】休日을압두고 氣乘薄이오 內債는 鈍調이나마 米貨債는利拂關係로 買收되고 六分半十錢 五分半六十錢高의 新高價를示하얏다

▲東邦電力新 [illegible] ▲大同電力 [illegible] ▲東拓 [illegible] ▲帝國火藥 [illegible] ▲朝鮮製鍊 [illegible] ▲北鮮製紙 [illegible] ▲大東電氣 [illegible]

▲甲五分利不申 ▲一回四分利不申 ▲二回四分利不申 ▲佛貨四分利一入六四〇

商況 (六日)
株式 雜株層에 暴落

前場不勢 今前場은 休日을압두고 日來人絹暴落으로 人絹株가 暴落인데다가 日產系悲觀이 濃厚하야 昨後場日產崩落의 뒤를이어 諸株無活氣이엇스니 即昨前引에比하야 東新六十錢低인百三十五圓三十錢、日產十錢低인百六十六圓丁 大新十錢低인八十二圓九十錢、帝人四圓暴落인百十五圓丁에 各大引이고 朝取六十一圓十錢 朝新二十五圓二十錢、日魯六十三圓丁 拓新九圓丁各一本이잇섯스며 日鑛新漸落步調로 結局昨後場보다 三圓四十錢暴落인 三十五圓四十錢大引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日鑛新 [illegible]

後場休會

後場은例休인데 大阪短期氣配가 大體保合이엇슴으로 當地氣配도 不變喝이나 마前途無期待

日產系總悲觀
日鑛新도暴落

日產新株權利落은 東京昨後場잇섯는데 會社側에서 新株四萬餘株를 入札하얏다하며 今前場大阪權利落에도 相當한 數를 會社側에서 引受할것갓다하야 全國을 通하야 二十萬株以上을 會社側에서 걸머지리라하니 社債發行까지 不能한 日產會社가 무엇으로新株의拂込을 하라는지前途悲觀되어 一部에서는 一氣로 額面五十圓割까지 豫想키에至하얏스며 日立의暴落으로日鑛까지 金價不勢와 相俟하야 急落되어 今前場當地北期市勢는 日鑛新三十五圓臺의 漸落이고 形勢不良하야 日產系諸會社株全面的惡化

六月末 殖銀米資
九百七十萬圓

殖銀六月末現在의米穀資金은 九百七十萬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四百三十萬圓의減少를示한바 內譯은 低資五百五十萬圓 自己資金四百二十萬圓이다 그리고이것을融資別로보면(單位萬圓)

▲米倉 二三〇 ▲農倉 一七〇 ▲野積正租 一六〇 ▲其他 四一〇

으로 正租五十三萬石 正米二十萬石에對하야 融資한것인데 米價高로 七月一日以降 處分物이 續出하야 每日五十萬圓內外의回收가되고잇다고한다

滿洲세멘트 熱河進出計畫

【遼陽電話商通】遼陽의滿洲세멘트會社에서는 錦西에年十萬噸의 세멘트工場을新設하게되어 實業部에許可를申請日인바最近分散的

主要株式利廻
七年十月以來高率
【電通東京電話】日本勸業銀行調査

(株) 市場六感

日產權利落後 崩落을期든 軟派는 마음대로되어가니 得意揚揚▲昨年四十餘錢의 日產이며 六十六圓臺로 떠러질줄 어찌아랏스랴▲六十圓臺에서 下支나되면 조켓다만은 一部에서는 額面五十圓割을 必期하는 程度로 極度悲觀 十餘圓내리두들기야 瞬間이 안지?▲돈업시 計株를 二十萬株以上이나 진머진 日產會社여 最後의發惡이나?▲인푸레狂時代에 天下를號令하얏스니 反動時間에 가장損酷한『코―스』를밟는것

(米)

昨今의 市勢는 强하면서도 伸惱하고 또한低段低落을 告하고도 高價強結局은 保合▲그러나 保合인만큼 硬派가 優越의 攬權을 掌握하고잇다 捕虜兵을 놋치지나 안흘는지 ▲步一步로 騰勢를加하는 大勢가 俄然伸惱함을보면 一段低落도容易할것갓다 그러나正米의 事情이 深入落은 許하지안흘듯 ▲果然前途供給問題는 第一로하고 當限의 渡米蒐集이注目

世事의 正鵠라고나할가? 世俗花無十日紅格▲本計도近者 좀버티기는한다만 물건너 文字로『앗사리』떠러저서 먼저 底入하는것이조흐련만……

處▲六限의 渡米調達이 容易치못한前鑑으로보아서 七限의 渡米調達은 加一層 如意치못할모양 ▲昨今期米는 正米에 比하야 割低를 示한즉 割低의定期를 더욱팔기가 難할듯 ▲當限과先限은 그限月이 다르마큼 當先의開輌가 擴大될지는 몰으나 當限이올으는때는先限은 울며겨자머기▲그러나 九限은當限時代의 早場米의 威脅이 업지아니할모양이니 受米處分難의 嫌이나업지 아니할는지몰라▲當限은 彈力性이잇고 先限은伸惱性이잇스니 結局當先의 開輌는 어떠한程度까지 擴大될것을可期

期米 高下不定 細刻
前場少堅

昨後場 阪地三十圓四十四錢止와共히 二十八圓四十六錢에寄合하야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圓三十八錢인六丁反落을 捕하고 二十八圓四十五錢인一丁低로 場當始한後 結局四十二錢에止場할當作하야 初付를最低로 五十錢의最高로 保合裡에五十錢에場을止하엿다

後場少弱

五十錢에 同價始場後不變이다가 五節四十五錢에少弱하고 別欄가티 止場하다

前途戰雲暗暗
大勢는將如何

買方은買萬能時代가 必至하리라하야 持久戰을繼續하는中이나 政府의古米百萬石拂下를 旣히決定하엿슴으로 何時에突然拂下할지를몰라서 賣人的行動을加하지못하고 軟派는在米品薄과渡米蒐集難을背後로한 强勢는旣히一巡하엿스은즉 此以上의高價는 容許치안니하리라하야 또한 買方을 挑하지안는모양이나 今年의作柄가 豐作으로 認定되기까지는 買安心하지 못하는光景으로 市勢는 此邊에서 進退兩谷의感이업지아니하다 그러나天災期에入한時期이라 早晩間에一大分岐의狀態을틀하고아말것임으로 前途戰雲은 갈사록暗澹할뿐이다 大勢가將次如何할지 推斷키는難하나그러나 今日의現象으로는買方이優勝하엿다할수잇스며 硬軟兩材를對比하여보다할지라도 硬材가 優越한편임으로 押目買가참아리 得策이아닐가한다

이 當限에入하는때는 早場의新米가 出廻하게되고그翌月인十月부터는 進新穀期임으로 渡米의無難이라는것보다 受米를 處分키難한 關係上買方으로서 受米를忌避할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當中兩限은 極度로 品薄을告할時代에 受渡되는 限米인데다가 贊成은 時期尙早일것갓다 九限

本年은大凶作의翌年으로 但서부터米穀의共通을 밧게되엿스로보아期近의 又復騰貴를見하게될 모양인즉 先限마의 買賣成은하지못할것갓다

現貨은强材뿐
正米情勢보면

植付를完了하엿다할지라도 現貨의事情을度外에付하야 [illegible] 수업는데다가南朝鮮地方은雨量不足으로 아즉移秧을마치지못하엿고 日本內地의關內地方은 旱魃끄테 水災의被害가 不少하엿슬뿐아니라 在來狀態로 보더라도 日本內地及朝鮮을不問하고 渡米의調達難은 勿論이어니와 政府米의大量拂下를 하기外에는需給難의難도免치못할現象임으로 賣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賣方 正米側乘換、神戶側京都側、西側、東京側、買方 …… 良、株式側、地場北國側、潮攻

各地正米

京城不冴
今朝定期의小浮動을보고도 賣方不氣乘이오 傍觀狀態이엇다 … 一等二十八圓七十錢 四等二十八圓五十錢 一等白米二十一圓丁

仁川同調
日本內地의 賣行不振과 常用必需側의 買續으로 商談이 不振하고 市況은 자못閑散하야 氣配는 前日同樣인 丸仁三等二十八圓七十錢 四等二十八圓五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二十錢

釜山不動
市場現物三千叺으로前日과同樣이나 奧地의移秧一巡으로 [illegible] 增加되엿스나 買方은 依然當用向의精米側으로 定期의高價關係로 地方入荷가 不振하고 市況은 閑散을告하야 五四七叺의 小口取引이 엇다 丙三等二十八圓二十九圓丁 四等二十八圓七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二十錢

大邱保合
繼續하야 實物이잇스나 奧地의硬强과 採算上引下하고보면 賣氣不乘이오 極히閑散의場面인데 丙三等二十八圓九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八十錢

群山小弱
廻着四輛農場物은 買物薄으로 依然底意의硬强을 示한 ⑨三等二十八圓九十五錢 四等二十八圓十錢 一等白米十二圓四十錢

木浦不變
日本內地買注文이 잇스나 在庫薄으로 買物이 皆無이오 取引은되지안허 極히閑散裡에 終始한 丸木多膽三等二十圓二十錢 四等三十圓丁 一等白米十二圓丁

南浦閑散
好境期에 當面하야 品薄이濃厚하고 極度의閑散을示하얏다 丸ナ龜尾三等二十八圓三十錢 四等二十八圓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六十錢

金融 六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六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六日

◆京城綿絲布市價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日本蠶絲市價 [illegible]
◆大阪正期米 [illegible]
◆鮮油沖價 [illegible]
◆鮮搾粕沖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價 [illegible]

期米 六日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株式 六日

◆朝取短期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大阪短期氣配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商品 六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大阪生糸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二一六五